

砲煙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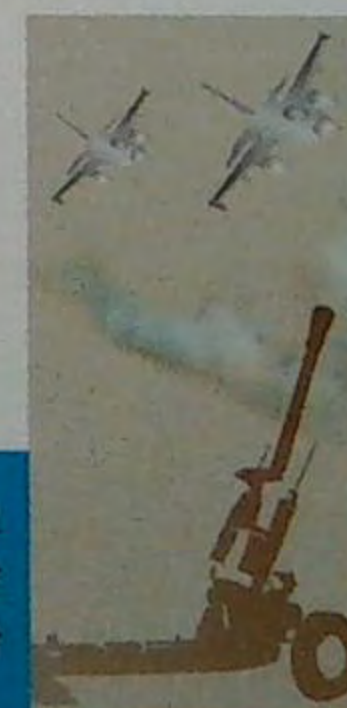
글쓴이 백락승

도서출판
국 제

砲煙

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글쓴이 백락승



같은 민족이 총칼을 맞대고
6·25와 같은 이 엄청난
얼은 것 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저 멈추고 있을 뿐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비극이 일단은 휴전의 형태로 아무것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서언 中에서

도서출판
국 제

砲煙
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백 락 승

- 1930. 9. 9. 출생
- 1950. 7 ~ 51. 10. 학도병 1기로 6·25전쟁 참전
- 1951. 11. 공군사관학교 입교
- 1954. 11. 공군소위 임관
- 1955. 1. 전투조종사 훈련 종료
- 1958. 3. ~ 58. 11. 미국계기비행교관 학교
- 1960. 4. ~ 61. 8. 공군사관학교 생도 대대장
- 1967. 1. ~ 68. 3. 비행학교 제15비행 대대장
- 1968. 4. ~ 68. 11. 미국 공군대학 지휘참모 과정
- 1970. 7. ~ 71. 8.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장
- 1975. 1. ~ 79. 9. 제15전투 비행단장
- 1970. 10. ~ 81. 3. 작전사령부부사령관 겸 제30방공관제단장
- 1981. 4. ~ 83. 1. 공군사관학교 교장
- 1983. 3. ~ 88. 9.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

증

백 락 승

포연 砲煙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서문 - 1
 1. 포연의 시작 - 2
 2. 포연의 전개 - 3
 3. 포연의 정점 - 4
 4. 포연의 종말 - 5
 5. 포연의 여파 - 6
 6. 포연의 기억 - 7
 7. 포연의 회상 - 8
 8. 포연의 미래 - 9
 9. 포연의 현재 - 10
 10. 포연의 과거 - 11
 11. 포연의 미래 - 12
 12. 포연의 현재 - 13
 13. 포연의 과거 - 14
 14. 포연의 미래 - 15
 15. 포연의 현재 - 16
 16. 포연의 과거 - 17
 17. 포연의 미래 - 18
 18. 포연의 현재 - 19
 19. 포연의 과거 - 20
 20. 포연의 미래 - 21
 21. 포연의 현재 - 22
 22. 포연의 과거 - 23
 23. 포연의 미래 - 24
 24. 포연의 현재 - 25
 25. 포연의 과거 - 26
 26. 포연의 미래 - 27
 27. 포연의 현재 - 28
 28. 포연의 과거 - 29
 29. 포연의 미래 - 30
 30. 포연의 현재 - 31
 31. 포연의 과거 - 32
 32. 포연의 미래 - 33
 33. 포연의 현재 - 34
 34. 포연의 과거 - 35
 35. 포연의 미래 - 36
 36. 포연의 현재 - 37
 37. 포연의 과거 - 38
 38. 포연의 미래 - 39
 39. 포연의 현재 - 40
 40. 포연의 과거 - 41
 41. 포연의 미래 - 42
 42. 포연의 현재 - 43
 43. 포연의 과거 - 44
 44. 포연의 미래 - 45
 45. 포연의 현재 - 46
 46. 포연의 과거 - 47
 47. 포연의 미래 - 48
 48. 포연의 현재 - 49
 49. 포연의 과거 - 50
 50. 포연의 미래 - 51
 51. 포연의 현재 - 52
 52. 포연의 과거 - 53
 53. 포연의 미래 - 54
 54. 포연의 현재 - 55
 55. 포연의 과거 - 56
 56. 포연의 미래 - 57
 57. 포연의 현재 - 58
 58. 포연의 과거 - 59
 59. 포연의 미래 - 60
 60. 포연의 현재 - 61
 61. 포연의 과거 - 62
 62. 포연의 미래 - 63
 63. 포연의 현재 - 64
 64. 포연의 과거 - 65
 65. 포연의 미래 - 66
 66. 포연의 현재 - 67
 67. 포연의 과거 - 68
 68. 포연의 미래 - 69
 69. 포연의 현재 - 70
 70. 포연의 과거 - 71
 71. 포연의 미래 - 72
 72. 포연의 현재 - 73
 73. 포연의 과거 - 74
 74. 포연의 미래 - 75
 75. 포연의 현재 - 76
 76. 포연의 과거 - 77
 77. 포연의 미래 - 78
 78. 포연의 현재 - 79
 79. 포연의 과거 - 80
 80. 포연의 미래 - 81
 81. 포연의 현재 - 82
 82. 포연의 과거 - 83
 83. 포연의 미래 - 84
 84. 포연의 현재 - 85
 85. 포연의 과거 - 86
 86. 포연의 미래 - 87
 87. 포연의 현재 - 88
 88. 포연의 과거 - 89
 89. 포연의 미래 - 90
 90. 포연의 현재 - 91
 91. 포연의 과거 - 92
 92. 포연의 미래 - 93
 93. 포연의 현재 - 94
 94. 포연의 과거 - 95
 95. 포연의 미래 - 96
 96. 포연의 현재 - 97
 97. 포연의 과거 - 98
 98. 포연의 미래 - 99
 99. 포연의 현재 - 100

백 리

· 1930
· 1950
· 1951
· 1954
· 1955
· 1958
· 1960
· 1967
· 1968
· 1970
· 1975
· 1970
· 1981
· 1983

contents

포 연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서언 - 1
6·25전쟁 발발과 입대 - 5
포병생활의 시작 - 15
다부동 전투 - 21
영천 전투 - 30
반격 - 38
서울 입성 - 45
북진 - 53
평양 입성 - 58
압록강을 향하여 - 65
중공군의 개입 - 75
1·4후퇴 - 91
서울 재 탈환 - 101
배수의 진 화전리 전투 - 107
고랑포에서 공군사관학교로 - 110
결언 - 118

운데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

간추려 얘기하자면, 전쟁으로 인해 득을 보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세력이다. 이들은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고 간다.

전문성이 없는 내가 더 깊이 전쟁론을 전개할 뜻은 없으나 어쨌든 정복과 지배욕에 눈이 먼 독재자와 그의 충복들이 저질러 놓은 전쟁이 그들에게는 세를 확장하고 군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전쟁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너무나 현실성이 결여되고, 비교육적 욕설로 일관되는 흥행일변도의 영화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6.25 전쟁당시 학병1기로 전투에 참가해서 영화장면과 똑같은, 전투 전면에서 사선을 넘어 지금까지 연명해 온 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면도 있어 전쟁당시 틈이 나는 대로 적어 놓은 진중기(陣中記)를 찾아 처절했던 전쟁의 실상을 되새기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희수(喜壽)를 바라보는 나이에 6.25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과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리고 싶어 참전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

다.

같은 민족이 총칼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6.25와 같은 이 엄청난 비극이 일단은 휴전의 형태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저 멈추고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리고 망한 자는 속병앓이로 죽어갔으며 그의 가족들은 거리를 헤매며 걸식을 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 비참한 뒀안길에는 전쟁발발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반사이익을 독식하며 전쟁 이전보다 훨씬 튼튼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오욕의 정치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전쟁이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를 마치 옛날얘기 같이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가 하면 통일지상주의를 외치며 북한이 우리의 현존하는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모습, 이러다가는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대살육전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백 번, 천 번 외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밝히며, 서언에 가름한다.

*

6.25전쟁 발발과 군 입대

1950년 6월 25일 미명을 기해 기습남침을 감행한 인민군은 최신형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서울을 향해 파죽지세로 공격을 가해 왔다.

당시 탱크뿐만 아니라 장갑차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국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 보지 못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전쟁발발 이틀만인 27일에는 창동을,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적의 수중에 내 주는 치욕적 패전의 쓰라림을 안은 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그 이남으로 철수하는 부끄러운 전사(戰史)를 남기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방송매체는 “용감한 우리 국군은 38선을 돌파

하고 평양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거짓 방송으로 일관했으며, 수원으로 긴급 피신한 이승만 대통령도 대국민방송에서 “수도 서울의 실태를 감춘 채 멀지 않아 이 나라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라는 사실과 정반대의 발표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혼선을 일으켜 피난의 시기를 놓침으로서 결국은 많은 저명인사들이 인민재판에서 처형되거나 북으로 끌려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한강 이남의 국민들의 가슴에 불신과 절망을 안겨 주었다. 당시 경북 안동에서 의과대학 입시를 위해 작심하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나 자신도 처음에는 평양진격 방송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쾌재를 불렀으나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아버지는 대한청년단 단장, 어머니는 대한부인회 회장, 나는 학련간부 및 학도호국단 간부이니, 인민재판 1호감이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총칼을 들고 불의의 침략자와 싸워야 한다고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께

“빨리 동생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십시오. 저는 자원입대하여 남침하는 적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다. 부모님은 묵묵부답이었으나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안동학도호국단 자문회의에 자원입대 청원을 하고 학도호국단 간부 친구들과 함께 격문을 작성, 이를 뿌리며 학생들의 자원입대를 독려했다.

어느덧 2백여 명의 자원입대 학생들이 모여, 이들은 6.25 전쟁이 발발한 보름 후인 7월 10일 안동에서 대구로 가는 임시열차에 몸을 실었다.

객차 두 량에 갈라 탄 학생 입대자들은 환송 나온 가족 친지들과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의 행운을 빌었으며 나 역시 환송 나오신 아버지께 정중히 머리숙여,

“아버지 몸조심 하십시오”

라고 작별인사를 드리니

“집안 걱정 말고 남아답게 씩씩하게 싸워라. 그리고 자중 자애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짧은 이별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뜻을

느꼈을 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윽고 기차는 환송 나온 가족들을 뒤로 하고 뜨거운 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멀어져가는 가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세라 차창 밖으로 목을 길게 빼고 마지막 이별의 말을 외쳐댔다.

기차는 낙동강 철교를 건너 대구 쪽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하는 군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기차가 무릉쪽 첫 터널에 들어서니 객차에는 전기도 없어 주위는 암흑으로 변했고 군가 소리가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하자, 곧이어 훌쩍대는 울음소리가 어둠 속을 메우기 시작했다. 나도 이 분위기에 휩싸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살아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젊음을 꽃피우기도 전에 죽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이 슬픔으로 번져 내친 김에 실컷 울어버렸다.

기차가 터널을 나와 주위가 밝아졌지만 울음은 좀처럼 멈추질 않는다.

돌이켜 보면 일본의 식민지 강압 정책 아래서 초등학교 당시 우리말을 사용했다고 목검으로 골통을 수없이 얻어맞았으

며 신사참배, 일본천황을 향한 궁성요배 등의 강요 속에서 우리의 민속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라난 불우한 세대. 해방이 되어 벅찬 감격 속에서 어깨동무 하여 거리를 누비던 것이 엇그제인데 북괴의 남침으로 젊음을 전장(戰場)에서 불살라야 하는 방패막이의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객차안의 울음소리는 당연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차는 영천을 경유해서 대구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군용트럭에 분승, 대구동부국민학교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입영수속을 밟고 간단한 보급품을 지급받은 후 내무반에 수용됐다. 책상의자를 다 치워버린 국민학교 교실이 내무반이니 꽤 큰 마루방이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으니 피로가 엄습한다.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는데다가 변화로 인한 긴장감 때문이겠지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깜박 잠이 들어버렸다.

갑자기 식사집합이라는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 이제 내가 진짜군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별떡 일어나 반합을 들고 간이천막으로 마련된 취사장으로 향하는 긴 대열에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화독내 나는 보리밥에 시큼하고 멀건 된장국이 전부다. 아

작은 배 속에 기름기가 남아 있는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내무반에는 전기가 없어 밝은 시간에 복도에 정열해서 일석점호를 받았다. 교실 바닥에 모포 한 장을 접어서 깔고 50여 명이 뻥뻥이 엉키어 취침에 들어갔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모기가 달라붙기 시작하니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한 것은 모두들 꽤 피곤했기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기상”이라는 외침과 학교의 종소리 같은 것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눈곱을 뽐 사이도 없이 옷을 입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 내무반별로 집합하니, 일조점호가 시작됐다. 인원점검이 끝난 후 애국가제창, 그리고 구보가 시작됐다. 구보는 교문 밖으로 이어지는 제방 뚝 길을 따라 뛰었는데 오줌이 마려운 것을 참고 뛰려니 방광이 당겨 죽을 지경이다.

다행히 얼마 안 가서 강기슭으로 내려가 구보는 끝나고 강물에 세수를 하라고 한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조점호 이전에 볼 일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세수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니 속이 좋지 않다. 아마 물을 갈아서 그러려니 하고 집에서 가져간 약을 먹었으나 오전 중 내내

배가 아프다.

때마침 10시쯤,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자는 집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배가 아프니 혹시나 해서 지시된 장소에 갔더니 아프다는 자가 100여 명이나 된다. 그 길로 트럭에 실려 의무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의무대 선임하사가 몽둥이를 들고 일갈(一喝)한다.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돌아간다. 알겠는가!”

나는 질끔해서 되돌아오려고 했으나 내가 자청한 것도 아니고 아픈 자는 오라고 해서 온 것인데 하는 생각에 그냥 환자대열에 서 있었다.

선임하사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 주겠다. 2열중대로 헤쳐 모여!”

그리고 연병장을 도는 구보가 시작이 됐다.

복더위는 아니지만 쨍쨍 내려 쪼이는 햇살아래 구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평소 단련되지 않은 나에게는 죽을 맛이다.

11시쯤 시작된 구보가 12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도 계속된다.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든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프지 않은 자는 나와라”

라고 선임하사가 소리쳤다.

더 이상 떨 수도 없고 더 뛰다가는 어설피게 아픈 것보다 더 큰 병을 얻을 것 같아 나는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대열에 섰다. 물론 고집을 부리던 소수의 무리도 곧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모든 환자는 피약별 아래서 1시간 구보라는 특수치료 요법으로 병을 고치게 된 것이다.

나도 신기하게 그 후로 배도 아프지 않고 설사도 멎어버렸다.

원대로 돌아오니 동료들은 주식(晝食) 후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있었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얘기는 들어 봤지만 이구치병(以驅治病)이라는 기상천외의 치유법이 제법 약발이 먹히는 것을 보고, 군대라는 곳의 특수성을 실감했다.

누군가가 변소에 파리가 많다고 불평을 했다.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부터는 파리를 10마리 잡아와야 밥을 준다고 한다. 도리 없이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파리를 잡았다.

그래도 지난날 복싱도 했고 다른 운동도 취미삼아 많이 했기 때문에 손놀림이 빠른 편이어서 20마리를 잡아 오늘은 10

마리, 내일 것으로 10마리 종이에 싸서, 식사대용 쿠폰으로 모포 밑에 감추어 두었는데 이 파리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앞으로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서로 지켜줘야 할 전우가, 밥 한 끼에 남의 파리를 슬쩍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흠친 자는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겠지만, 막상 나는 굶어야 한단 말인가!

다행이 몇 마리 더 잡고, 친구의 잉여분을 보태서 밥은 얻어먹었으나 찻찻한 기분은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갑자기 과거에 나팔 불었던 사람은 인사계로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나는 색소폰은 잘 다루지만 트럼펫 같은 고음 관악기는 불 수는 있지만 신통치 않은 편이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지 불려갔다. 군대나팔을 불어보라고 한다.

〈키〉가 간단해 그 정도야 쉽게 불 수 있어 기상나팔과 취침나팔을 불었다. 그 즉시 나는 나팔수로 임명됐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상나팔을 부는 것을 개시로 나의 일과가 시작되었으며 취침나팔을 부는 것을 종료로 나의 일

과는 끝났다.

사역집합이나, 불침번 근무, 야간초소 근무와 같은 힘든 일이 면제되어 이때부터 나의 병영생활은 편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1주일의 지난 어느 날 포항지구 전투부대에 배속 될 병력을 차출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서로가 나가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도 500명 정도는 된 것 같다. 이들은 그 날짜로 트럭에 실려 그 격심했던 포항지구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그 후 들은 바로는 이 지역에 투입된 학병1기의 대부분은 이곳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지금은 포항에 이들의 유혼을 달래는 전몰학도병의 충혼탑이 있다고 들었으며, 1,394위(位)가 합사되어 있다고 한다.

나도 친구들 따라 포항전투지구 참전 선발에 지원했었지만, 나팔수가 어디를 간다고 하느냐 하고 질책을 당하고 주저앉게 된 것이 아마도 나의 생명을 연장하게 된 행운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며칠 후 포병부대에서 병력차출이 있었다. 나도 이번에는 차출명단에 포함되어 이곳 동부국민학교 입영 2주 만에 포병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대구경북고녀로 이동하게 됐다.

*

포병생활의 시작

경북고녀 대강당에 집합한 학병1기는 70여 명이었으며, 그 때까지도 집에서 입고 온 학생복에 학생모, 그리고 가슴에 학병1기라는 천으로 된 표시로 병영생활을 했다. 이곳 포병사령부에서 부대배치가 되고 군번이 주어졌다. 나는 17포병대대로 배속이 됐으며 5704541의 군번이 주어졌다. 이 군번은 6.25 이전의 고참군번이며 우리 다음부터는 03이 붙는 새로운 군번이 주어졌다.

경북고녀에서 3일간 포병에 관한 일반적 개요, 105밀리 곡사포의 재원 등 초보적 단계의 교육을 받은 후 8월 초에 낙동강 전선에서 격전중인 17포병대대를 향해 대구를 출발했

다. 전투지역을 향해 북으로 달리는 트럭의 길 양쪽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피난보따리를 메고 또는 어린이들을 등에 업고 남쪽으로 끝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대구 쪽으로 줄을 이어 남하하는 군상들을 보는 나의 심정은 우리 가족들도 저 피난민의 무리 속에 함께 묻혀 정처 없는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할 뿐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낙동리라는 지역이었다. 도착을 하니 막 대대본부가 안계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하차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대대본부가 가는 곳을 뒤따랐다. 안계 시가지를 벗어난 벌판에 대대 CP가 자리를 잡자, 우리는 입대수속을 밟고 일체의 보급품 그리고 무기(칼빈소총과 수류탄)를 지급받았다.

군복이라는 것이 미군작업복 한 벌인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부대자루에 들어간 것 같이 보인다. 되는데로 접어서 걸쳐 입고 철모를 쓰니 이제야 군인 같아 보인다. 모습이야 핫바지 같지만 그래도 칼빈총을 어깨에 메고 수류탄을 탄대에 매다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으쓱해진다. 나는 함께 배속된 가까운 고향친구 서너명과 대대정보과(2과)에 배속됐다. 정

보과는 포병대대에서는 관측 및 측지의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한다.

17포병대대는 아직은 완성된 3개 중대가 못되는데다가 지원해야 할 1사단 전투정면이 너무 넓어 하루에도 몇 번씩 위치를 이동하면서 지원사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에서 정보과가 해야 할 관측과 측지의 임무는 당분간은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대본부에 배속된 학병1기는 다음 날부터 최전방에서 포격중인 전포대에 배치돼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포탄까기 및 운반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105밀리 곡사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었으나 전포대에서 발사되는 대포의 엄청난 소리에 허리가 빠져버렸다.

“중대 5발” “쑈”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깃발이 사선을 그으며 내려오면 쿵쿵쿵! 하는 찢어지는 폭음과 함께 붉은 화염과 연기가 포를 휘감는다. 포 주변에서 포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발사되는 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위력을 엄청난 놀라움 속에서 실감했다.

몸이 공중에 뿔뿔히 떨어질 정도의 충격, 허파가 있다면 허

파가 터져버릴 정도의 압력, 귀가 찢어질 정도의 파열음, 그리고 매캐한 화약 타는 냄새, 이 모든 것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점심시간이 돼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또 “쿵쿵” 하고 포가 불을 뿜는다.

“아차” 깜짝 놀라 아까운 주먹밥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흠이 묻어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깝기 짝이 없다. 다 큰 놈이 어린애 같이 경기(驚氣)야 나겠는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이러다간 경기가 아니라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몸살이라도 날 것 같다. 밤중에 피곤한 몸을 모포에 감고 잠을 자는데 또 폭발음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계속 되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 전쟁발발과 동시에 38선에서부터 계속 포를 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 온 전포대의 고참들은 사격임무에서 교체되자마자 바로 포 옆에서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버린다. 포가 불을 뿜던 폭음이 천지를 진동하듯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자는 모습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전포대에서 2~3일 머무는 동안 남쪽으로 계속 후퇴하는 위치 변동이 있었고, 대대CP로 복귀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

는 다시 원대로 돌아왔다.

대대CP는 안계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텅 빈 시가지에서 쓸만 한 집을 골라 17SQ, S-2라는 나무판 판대기만 붙이면 그 곳이 우리의 사무실 및 숙소가 되는 것이다. 식사는 대대 노천 취사장에서 반합 등으로 타 와서 먹는데 현지 조달이 잘 돼서 그런지 국도 있고 반찬도 있어 먹을 만 했다.

측지교육을 받고 노트정리를 하고 나니 고참 중사가 따라오라고 한다. 몇 명이 칼빈총을 메고 동리를 돌아봤다.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서 아무도 없고 가축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돼지도 돼지우리에 그대로 꿀꿀대고 있으니 언젠가는 사료가 없어 죽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차에 “야 저 돼지를 잡아서 오늘 저녁 회식을 하자”라고 고참이 말한다. 비록 남의 돼지이기는 하지만 계속 후퇴만 하고 있는 판국에 그대로 두고 간다면 인민군의 식용이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적행위다.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돼지 미간에 칼빈총 한 발을 박아 넣었다. 죽이기는 죽였는데 돼지를 어떻게 먹도록 손질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무겁고 냄새도 더러운데 털도 벗기기 힘들어 속수무책이다.

대충 앞다리 뒷다리만을 잘라서 동리에서 구한 리어카에 싣고 나머지는 돼지우리에 버린 채 숙소로 돌아왔다. 빈 집

부엌에서 물을 끓여 통째로 삶아버렸다. 폭 잘 삶아서 그런지 속살만 대검으로 잘라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누군가가 장독에서 고추장을 뒤져 가져 왔다. 고추장에 돼지고기 제육, 전쟁터의 야참치고는 제법 격조가 높다.

다음 날 8월 10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후퇴명령을 받고 이동준비를 서둘렀다. 신주막이라는 곳을 거쳐 다부동쪽으로 후퇴했다. 전포대는 계속 유학산 동남쪽 효령면 산기슭에 포진하고 지원사격을 하고 있었으며 나는 연락병 임무를 띠고 대대CP와 전포대를 걸어서 오갔다.

*

다부동 전투

며칠 후 유학산 정상에 인민군 장악하에 들어가게 되자 전포대의 모든 전력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부동을 지나 가산 산성 서쪽 기슭에 있는 계정사 아래쪽에 포진하고 다가 올 결전에 대비하게 됐다.

다부동 전투가 나의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17포병대대가 이때 처음 대대사격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대대 S-2 관측 및 측지반 사병들이 최전방 대대OP에서 사격지휘를 위한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S-2보좌관, 선임하사 그리고 중사와 관측병 2명, 통신병 1명 등 총 6명으로 편성된 대대관측 및 사격지휘반은 다부동,

유학산 일대에서 벌어진 2~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시종 대대OP에 위치하여 대대사격을 지휘했다. 이때까지와는 달리 사단의 전투 전면이 좁아지면서 유학산 쪽으로 모든 전력이 집중되다 보니 중대단위로 연대를 지원하던 종전의 지원 사격이 아닌 대대 전 화력을 하나로 묶어 집중적 포격을 가하는 것이 더욱 위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유학산이 왼쪽으로 올라다 보이는 OP에서 개미떼 같이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 병력에 대한 포격이 시작되었다.

“좌표(육도) 〇〇〇대대 중앙포 둘(2)발 WP탄 발사”를 보좌관이 유선으로 지시한다. 그러자 OP 뒷쪽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우리 머리위로 “쉬-익”하는 소리가 나고 이윽고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는 약간 오른쪽 아랫부분에 연막탄이 터졌다.

그러자 보좌관은 즉시 “좌로 둘백(200m) 더하기 〇〇 발사”하고 소리친다. 다시 연막탄이 발사되니 이번에는 인민군 병력의 중심지에 포탄이 떨어졌다.

“효력사, 대대 5발, 발사” 보좌관이 소리를 질렀다. 뒷쪽에서 쿵쿵쿵 하고 계속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위로 연신 쉬-익 소리를 내며 포탄이 적진으로 날아간다. 이번에는 순발탄이

기 때문에 번쩍번쩍 하는 불꽃과 검은 연기가 뒤엉키면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轟音)을 내고 인민군 주변에 작열(灼熱)한다.

18문의 포에서 5발씩 90발을 순식간에 적의 머리 위에 퍼부어대니 적은 지리멸렬 이수라장이 되어 후퇴하기 시작했다. 105밀리 유단포의 집중사격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다.

통쾌하고 그동안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싹 씻겨내려 가는 것 같았다. 계속 이렇게 적에게 위력적인 포탄세례를 퍼붓고 있는데, 유학산 동쪽 기슭 국도를 따라 인민군 탱크 2대가 끼리끼리 하는 기분 나쁜 무한궤도의 마찰음을 내며 다부동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전차가 다부동 쪽에서 외관과 동명을 잇는 국도를 차단하면 큰 일이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머리 위에 미국 해군함재기 4대가 나타났다. 4대가 꼬리를 물고 한 바퀴 돌더니 1번기가 꼬리를 바짝 쳐들고 곤두박질을 친다. 로켓발사 소리와 기총소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아깝게도 첫발은 적의 탱크를 명중시키지 못했다. 혼비백산한 인민군 탱크는 진행 오른쪽에 있는 초가집에 폭 파묻혀 버렸다.

뒤따르던 탱크는 숨을 곳이 없으니 그대로 도로에 탱크를

세워둔 채 탱크병들이 도망치는 것이 보인다. 2번기가 곧두 박질치더니 로켓을 발사했다. 도로에 서 있던 탱크에서 불이 번쩍 하고 일고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버렸다.

명중이다. 통쾌한 순간이다. 이윽고 3번기, 4번기가 꼬리를 물고 공격을 계속한다. 결국 초가집으로 들어가 위장을 했던 탱크도 함재기의 로켓 공격을 받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고철덩이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곡예를 관람하는 기분이다. 우리는 OP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만세를 외쳐댔다. 이때 내가 선임하사에게 물어봤다.

“선임하사님, 저런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임마, 엽전이 보리밥 먹고 저런 비행기 타면 배탈나고 현기증 나서 떨어져 죽어!”

가당치도 않은 꿈은 일찌감치 접어두라는 얘기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치 않은 얘기였지만 그 때 우리는 저런 전투기는 탈 수 없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의 공격이 끝나자 또다시 포사격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끔끽거리며 힘겹게 매고 올라왔던 관측기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선임하사는 손을 뻗어 주먹을 쥐고 거리를 대충 셈해서 “이 정도 주먹폭에 2,000미터 정도 거리면 200밀

리만 수정하면 된다”하고 결정하고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 사격지휘를 하는데 정확하고 대단히 효율적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밤이 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판초우의를 입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판초우의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결국 몸이 다 젖어버렸다.

한기가 엄습하니 이빨 마주치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이고 온 몸이 와들와들 떨린다.

여름도 이렇게 추울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맛보았다. 날이 흰히 새니 어금니가 흔들흔들 한다. 밤새 어금니를 꼭 깨물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안개가 짙게 끼고 OP에서 관측하기가 힘들어 산을 내려와 주먹밥과 건빵 등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시 OP에 올라오니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또다시 날씨가 추워진다.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나의 옆구리를 쿡 친다. 눈을 떠 보니 선임하사가 어둠 속에서 손을 입에 대고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며 조용히 그리고 재빠르게 참호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 갔다.

영겁결에 뒤만 쫓아가면서 주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보병부대

병사들이 눈에 뜨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칠혹 같은 깊은 밤에 인기척 없는 고지를 말없이 내려오면서 보병 부대가 후퇴해 버렸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산허리 부분을 타며 조심조심 남쪽으로 이동하기 2시간여, 날이 흰히 밝아오는데 위치를 확인해보니 동명이라는 동네다. 보병 부대가 후퇴하고 대대OP가 적지에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는 운 좋게 야밤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동명에서 다시 북쪽으로 2킬로 정도를 올라오니 17대대 CP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후퇴해서 동명시가지 북단으로 이동했다. 듣기에는 1사단 사령부도 동명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가 지척의 거리에 있으니 사단 사령부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전황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다가와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 깜빡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느닷없는 총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드르륵 드르륵, 딱쿵, 딱쿵, 요란한 다발총과 AK소총의 총성이 지근(至近) 거리에서 귀를 두들긴다.

칼빈 총을 메고 옆에 자던 전우와 뒷뜰에 있는 돼지우리에 포복해 가서 납작 엎드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총소리가 나는

방향과 거리 등을 가늠해 보니 우리가 위치한 곳보다는 남쪽, 즉 우리의 후방에서 들리는 총성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대CP는 적의 후방에 고립된 것일까?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엄청난 총격전 소리가 등 뒷쪽에서 계속 들리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갑자기 총소리가 멎더니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제 총소리가 멎고 조용해지니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돼지 똥과 썩은 돼지먹이가 얼굴과 군복에 범벅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막 돼지우리를 나오려는 찰나 바로 우리 앞 골목길을 속보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인민군 유격대가 틀림없다고 육감적으로 느끼자 다시 돼지우리에 납작 엎드렸다.

1미터도 안 되는 코 앞에서 덜컹덜컹 하는 나의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적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유격대 숫자는 어림잡아 50여 명은 되는 것 같다. 이들이 돼지우리 앞을 지나간 시간은 실제로는 얼마 안 되었겠지만 왜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한참 그대로 엎드려 있다가 이제는 상황이 끝난 것 같아 돼지우리에서 나왔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주변에 몸을 숨

졌던 전우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아우성들이다.

즉시 개울가로 뛰어가서 새벽의 쌀랑한 기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얼굴과 몸을 씻고 또 씻었다.

상황이 끝나고 들은 얘기지만 새벽녘의 인민군 유격대의 기습공격은 1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던 동명국민학교가 목표였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학교 운동장 주변에 1개 보병대대가 출동 대기중이었기에 인민군 유격대와 육탄전 끝에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사단사령부에는 사단장 백선엽 장군도 있었으며 혼전 속에서 직접 권총을 빼들고 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옆드리고 있던 돼지우리 앞을 달려간 적은 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게릴라부대의 일부인 것 같았다. 어쨌든 1사단이 대구를 사수한다는 결의로 결사 항전하던 다부동 전투는 급기야 사단사령부가 기습을 당하는 등 전선의 앞뒤가 서로 교차되는 초유의 혼전양상이 전개되었다.

다부동 전투는 국가존망을 건 혈전이었으며 낮에는 공격, 밤에는 후퇴를 되풀이 하는 가운데 시체는 산더미 같이 쌓이고 피는 강물과 같이 흘렀다고 해서 시산혈하(屍山血河)의

격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후 17포병대대는 동명에서 며칠 더 머물렀으나 미군의 최선에 기갑사단이 다부동 쪽으로 증원됨에 따라 17포병대대는 8월 말경 동명쪽에서 팔공산 동쪽 신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

영천(永川) 전투

영천 쪽의 전황도 대단히 급박한 것 같았다. 신령에서 하루를 지낸 다음날 아침 S-2 주임장교 신대위가,

“백이병 오늘 내가 대구에 가서 포사격 관측을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었으니 같이 가자”라고 한다.

수행병으로 가지는 것이다

즉시 수행준비를 마치고 쓰리쿼터(3/4톤) 트럭 뒷편에 탑승하고 대구로 달렸다. 대구 경마장이 공군의 관측기가 뜨고 내리는 임시 비행장이라고 한다.

대구 역전을 지나 달성 쪽으로 한참 달리니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포장 활주로가 나타났다.

신대위는 지휘소처럼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 30분 정도 있다가 비행준비를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제 나는 곧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대기중인 프로펠러 경비행기에 탑승, 이륙지점으로 이동해 갔다. 운전병과 내가 손을 흔들었더니 주임장교도 손을 흔들어 답을 했다.

곧 경비행기는 뽀얀 먼지를 뒤로 하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이내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때가 11시쯤 된 것 같았다. 12시가 지나니 배가 고프기 시작해 가져간 건빵으로 요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가 됐는데도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운전병은 하사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아는 것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으나 비행기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2시가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걱정도 되어 지휘소 건물에 들어가 공군병사를 잡고 물어봤다.

“우리 주임장교 신대위가 11시경에 포관측 사격을 위해 이륙했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군병사는 우리를 까만 완장을 찬 공군장교에게 안내해 줬다.

장교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항공기가 관측임무 수행 중 적기의 공격으로 격추되어 조종사와 관측장교는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계속 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침통한 어조로 말을 했다.

도대체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식이란 말인가! 조금 전 손을 흔들며 동쪽 하늘로 날아간 주임장교가 돌아가셨다니!

트럭에 올라 앉아 멍하니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양 눈에 이슬이 맺힌다. 아직 점심도 못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느낌조차 없다.

“하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제는 부대로 돌아가야지”하고 차의 시동을 건다.

오전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나의 시야에는 대구시가지도 보이지 않고 앞좌석 주임장교가 없는 빈 자리만 자꾸 눈에 아롱거려 기막힌 심정으로 슬픔을 달래며 신념 원대로 돌아왔다.

선임하사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이미 대대본부에서는 전방으로부터 사고의 현장보고가 있어 다 알고 있었다. 함경도 분이고 총명하고 예리하면서도 부하들을 따뜻하게 해주던

멋있는 상사(上司)였는데 이렇게 덧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새벽에 드르륵 드르륵, 딱쿵 딱쿵 하는 적의 총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또 적의 기습공격이다. 급히 군장을 갖추고 차량에 탑승하여 영천 쪽으로 달렸다. 물론 영천 쪽으로 후퇴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듣기로는 영천이 대구를 사수해야 하는 최후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부동 못지않게 중요한 요충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곳도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17대대는 하양이라는 곳까지 후퇴를 해서 이곳을 지나는 국도 좌우편의 과수원과 강기슭에 포진지와 대대CP가 함께 자리를 잡았다. 과수원에 포진한 105밀리 곡사포의 사계(射界)청소를 위해 사격방향의 과수나무를 자르는 작업에 대대본부 사병들이 동원됐다.

한참 사과가 여는 사과나무가 인정사정 없이 잘려나가는 모습이 전쟁의 무상함을 실감케 한다. 이곳에서 정보과 사병들은 밤에는 철야 포진지를 지키는 경비병으로 동원이 됐다. 적의 게릴라식 기습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를 상황인데 칼빈 총 1정에 수류탄 2발로 2명씩 복초를 선다는 것이 왜 그런지

불안하고 미덥지가 않다.

삼라만상이 죽은 것 같이 조용한 심야의 개인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전방을 응시하며 전쟁터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늘을 쳐다보며 이러한 고요함이, 그리고 평온함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디선가 여자의 양철을 찌르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린다. 적의 게릴라가 침투해 여자를 찔러 죽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못된 병사놈이 여자를 겁탈하는 것일까? 다시 적막이 흐른다.

아— 전쟁은 분명 최악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성의 재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한 환향녀가 지금에 와서는 바람난 화냥년으로 둔갑하는 전쟁의 후유증을 곰곰이 되씹어 본다. 밤에 보초를 서면 낮에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과다. 강가에서 전우들과 미역을 감고 모래 언덕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저기 물고기가 꽤 많은데 잡아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자”라고 제의한다. 한 친구가 그 말을 듣자, 수류탄을 들고 왔다. 순간 웬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광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으—” 하는 신음소리가 났다. 벌떡 일어나 소리나는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몸이 만신창이가 된 전우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것이다. 아마도 수류탄 안전핀을 뺀 채 강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트리가」를 놓아버린 것이 아닐지? 수류탄이 손아귀에서 터져버렸으니 신체의 손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까운 젊은 생명이 전쟁에서 산화한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고기를 잡다가 그것도 무기가 사용되지 말아야 할 곳에 무기를 사용(私用)하다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시 선임하사에게 사실이 보고되었고, 뒷수습은 잘 됐으나 이 사고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슬픈 기억거리로 남게 되었다.

하양에서 나의 생일 9월 9일을 맞이했다. 저녁에 야간 보초근무에 나가기 전 반합에 밥과 된장국을 타 와서 먹고 있는데 전우가 사과밭에서 따 온 사과를 주면서 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내가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으나 사과를 따서 선물로 준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금 영천 쪽에서는 실함(失陷), 탈환(奪還)의 대격전이 벌

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사치스럽게 생일을 운운할 때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집에서는 나의 생일이면 으레 미역국과 잡채, 여러가지 전거리가 밥상을 장식했었는데 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 봤다.

갑자기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났다. 지금 어디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후 대대CP는 동촌으로 이동했다. 거기에는 사단사령부도 위치하고 있었다. 멀리 동촌비행장에서는 프로펠러 전투기가 쉴새없이 뜨고 내린다. 이제 동촌까지 왔으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초조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영천 방면의 전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9월 16일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상륙전단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충격적 낭보가 날아들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이란 말인가!

그동안 대구를 압박하던 인민군 주력도 자신들의 허리를 자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꺾이고 결국은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를 할 것이 자명하다. 상륙부대는 곧 서울을 수복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내친김에 북진통일까지 해야 한다고 독백을 해 본다.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국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인민군은 지리멸렬, 초라한 패잔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세는 바뀌었다.

최전방에서 날아드는 전황도 대단히 고무적이다. 12연대는 적의 후방으로 우회해 적의 퇴로를 차단, 주력부대를 섬멸했다고 한다. 사단 사령부와 인접한 위치에 주둔하고 있었던 관계로 최선의 전황을 속속 알 수 있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붉은 공산도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시고 이 나라가 세세토록 이어온 단일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게 통일의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속이 후련해지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다. 학도지원병으로 군에 자진 입대하여 인민군과 싸워 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곧 통일이 되고 우리 학도병은 조만간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때는 내가 학도병1기로 자원하여 국군의 일원으로 용감하게 싸워 이겼노라.” 라고 큰소리치며 자랑하는 날이 오겠지!

상상은 상상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

반격

이윽고 진격명령이 떨어졌다.

인천상륙작전이 있는지 4~5일만의 일이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기분 좋은 진격이다.

이 때까지 후퇴만 했지 전진이 없었기에 느낌은 각별했다. 포병은 보병과는 달리 포를 차에 매달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3보 이상 구보가 아니라 3보 이상 차량이동이다.

먼지가 뽕양게 이는 도로 양쪽으로 걸어가는 보병을 뒤로 하고 북으로 달리는 포병의 차량행렬은 포병이 아니면 맞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17포병대대는 칠곡, 동명을 거쳐 지난번 격전지였던 다부동 쪽으로 진격을 했다.

인민군 T-34탱크와 산포등이 전투기의 폭격을 받았는지 포신이 찢어진 채 고철로 길가에 나뒹굴어져 있다. 그 모습이 전쟁초기 우리 국군의 사기를 꺾고 보병을 전쟁공포증으로 몰고 갔던 위력적 탱크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

다부동 고갯길은 죽은 시신이 내뿜는 특유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길 옆에 수습하지 못한 채 뒹굴고 있는 시체는 구더기로 부글거리고 있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었던 관계로 어느 쪽도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던 격전지 다부동. 처절한 전쟁의 후유증을 목도하는 심경이 착잡하다.

만일 내가 다부동 전투에서 죽었어도 저렇게 방치됐고, 나는 구더기로 부글거리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떠오른다.

전생에 죄를 지으면, 후세에 파리로 태어난다 하더니 구더기를 보니 과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했다. 기독교인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고 머리를 흔들며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

왼쪽으로 유학산을 바라보며 고갯길을 내려와 직선도로로

접어드니 지난 8월 중순경 대대OP에서 목격했던 함재기 공격을 받아 부서져버린 적의 탱크가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탱크란 보병에게 분명 위력적인 존재이겠지만 전투기 앞에서는 고양이가 앞의 쥐에 불과한 것 같다.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비록 보리밥을 먹는 엽전일지라도, 현기증이 나서 힘들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못할 것 없지 않는가?

달리는 트럭 위에 앉아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며 가당치도 않는 꿈을 꾸며 북으로 북으로 진격을 계속 했다.

역시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대가 빠르다 보다. 우리 포병부대가 보은에 도착하니 아직 보병부대는 보이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낙동강 주변에서 전투에 참가한 이래, 계속 후퇴만 거듭해 왔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파죽지세로 진격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소수의 적 게릴라 기습에 혼비백산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아직도 산등선을 타고 인민군 주력부대가 후퇴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는 지근(至近) 거리에서 보병부대도 당도하지 않은 보은 땅 평지에 숙영지를 정하고 마음 편하게 쉬고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양상은 180° 달라져버린 것이다.

즉 대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대세가 바뀌면 우세한 쪽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열세를 느낀 쪽은 기가 죽고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 서로가 죽이고 죽는 육박전까지 감행했던 기싸움에서 이제 인민군은 우리 국군에 기가 꺾여 저렇게 전의를 상실하고 패주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적이 무섭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호뭇한 기분으로 휴식을 즐겼다.

점심식사가 끝났을 무렵, 속리산 법주사 쪽에 있는 지사에서 귀순한 인민군포로를 인수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

대대본부에서 포로를 인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인수조가 각과별로 차출된 9명과 인솔선인하사 1명으로 편성되어 트럭에 편승하고 법주사 쪽으로 출발했다. 보은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은 말티고개라는 험하고 높은 고개가 있다.

꼬불꼬불한 급경사 고갯길을 트럭은 마치 곡예를 하는 기분으로 웅웅거리며 올라간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낭떠러지 계곡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물가물하다. 오금이 저려 눈을 감아버렸다.

내속리 파출소에는 어느 사이에 지방 청년들과 전투경찰이 지서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돌담으로 둘러싸인 낮은 방호벽에 진지와 초소를 구축하고 근무중에 있었다.

깜짝 놀란 것은 인민군 포로가 8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인민군을 군인도 아닌 경찰과 청년 10여 명이 어저께부터 억류하고 있었다고 하니 또 다시 대세론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둘러 포로를 인수하고 인수조를 선두와 중간위치, 그리고 후미에 각각 3명씩 배치해서 도보로 보은을 향해 출발했다.

트럭은 먼저 보내버리고 행군중대를 이루니 꽤 긴 행렬이다. 포로 중에는 인민군 상위도 한 명 끼어 있었다.

나는 인솔선임하사와 인민군 상위가 있는 후미에서 행군을 계속했다.

힘든 말티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아직 밝기는 했으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이었다.

선두에서 걸음을 재촉하던 행군중대가 막 고개 정상 협곡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양쪽 산등성이에서 드르륵 드르륵 따쿵 따쿵 하는 기습사격이 가해져 왔다. 우리의 긴 도보행렬을 미리 보고 이곳에 매복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아무리 대세가 기울고 사기가 떨어졌다 해도 그중에는 독한 놈들이 있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양이다.

우리 행렬은 지리멸렬 큰 타격을 입고 가던 길을 되돌려 속리산 쪽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두 쪽에 있던 전우 2명 중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앞쪽에 있던 포로들은 그 와중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다시 내속리 파출소로 되돌아 왔다. 남은 포로는 4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는 인민군 장교 상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둠이 깔리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언제 인민군의 특공대가 지서를 습격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완전 고립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다행히 먼동이 틀 때까지 적의 공격은 없었다. 어제 귀환해야 할 포로인수팀이 돌아오지 않자 이를 우려한 대대에서 아침 일찍 트럭 4대와 증원병력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손실 없이 속리산을 빠져나와 무사히 보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보병은 산병전을 할 수 있게 훈련되고 조직되었기 때문에 지상전투에 강하지만 포병은 분대전투도 모를 뿐 아니라 소총도 칼빈총으로 빈약한 상태라 어저께와 같은 기습공격에는 속수무책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또 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보은에 며칠 더 머물러 있으면서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 탈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답답해하던 차에 우리 부대가 청주로 이동한다고 해 쾌재를 불렀다. 벌써 서울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설레임으로 이동준비를 서둘렀다. 오후에 청주에 도착한 우리 부대는 도청 옆 큰 공원 내에 천막을 치고 숙영을 하게 됐다. 교도소에서 풀려 나온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시가지를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서울에서는 형과 누이동생 둘이 피난을 못한 채 소식이 두절되었으니 과연 무사하기는 한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

서울 입성

청주에서 이틀을 머무른 뒤 드디어 서울을 향한 진격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서울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울컥하고 감격의 눈물이 솟는다.

진천과 수원을 거쳐 우리 부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에 입성했다. 서울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다. 서울역에서 남대문 쪽은 아무것도 없다. 남산의 소나무만,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듯 홀로 푸르르다.

떨리는 감회를 억누르며 우리의 주둔지인 서울역 서쪽 서대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붉은 벽돌집에 17대대 S-2라는 간판을 붙였다. “아아— 이제 서울에 입성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본다. 만감이 교차한다.

부모생각, 서울에 있을 형과 누이동생들 생각, 그리고 북진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원들이 뒤범벅이 돼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왼쪽으로 보이는 서울역 건물은 옛모습 그대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숙소의 청소, 정리가 끝나니 저녁때가 됐다. 멀리는 나갈 수 없으나 서울역 주변에는 틈을 짜서 외출할 수 있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고참들과 함께 후암동으로 가는 언덕쪽으로 산책삼아 어슬렁 어슬렁 걸었다. 저녁때가 돼서 그런지 피난민과 군인들이 뒤섞여 부침과 막걸리 등을 파는 목로주점에는 제법 먹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전쟁터에서 두 달여 보지 못했던 풍경과 기름진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뜻인가 하고 생각에 잠긴다.

당시 대구 이남은 화폐개혁으로 신권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서울은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구 화폐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우리는 포로를 많이 잡아 구 화폐가 제법 있었고, 외출시 충분히 돈을 챙겨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아 보이는 집에서 한판을 질편하게 벌려 볼 양으로 이집 저집을 물색하고 다녔다.

포로를 잡으면 압수품목은 전부 당국에 함께 인계되어야 하나 우리는 구 화폐를 압수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카바이드 등으로 불을 밝힌 주점에 들어가서 드럼통으로 두들겨 만든 둥근 즉석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는 호기 있게 푸짐하게 안주를 주문하고 막걸리가 아니라 약주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다.

큰 주전자에 약주와 찌그러진 알미늄 술잔이 놓이자 안주도 준비되기 전에 잔에 그득히 약주를 붓고 인솔 선임자의 선창으로 건배하며 약주를 단숨에 목구멍으로 부어 넣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먹어보는 약주 맛이다. 부침개가 나오고 얼큰한 찌게도 준비되자 약주의 순배는 점점 빨라졌다.

밥을 먹을 작정이었으나 결국은 약주와 안주로 시종됐다. 취기가 돌기 시작하니 고참들이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군가라기보다는 서북청년단(해방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와 결성된 반공단체)의 단가이다.

17포병대대의 하사관 90퍼센트는 서북청년단 출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선임자들은 군가를 부른다면 서북청년 단가를 부르는 것이 관행인 것이다.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구석진 방에서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얼굴에 밀가루를 바른 여자 2명이 나와서 장단을 맞추며 남은 약주를 연신 마셔댄다. 우리가 약주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저씨 약주 한 주전자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아마도 전주가 있었는지 리을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어 내가 술값을 치르고 오니 여자가 훌쩍훌쩍 울고 있다. 술이 취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군에 불들려 가서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어린 새끼 먹여 살릴 길 없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울어댄다. 참으로 딱한 사정인 것 같아 야전점퍼 속에서 남은 돈을 몽땅 그 여자에게 털어주고 목로주점을 나왔다.

적선지가 필유유경이라 했던가!

비록 포로로부터 압수했던 돈이지만 이런 기회에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니 복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거나한 기분에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울역 앞을 걸었다.

다음날 아침 조식 후 특별한 일과도 없는 것 같아 선임하사를 찾아가 “우리 집이 중앙청 옆 체부동에 있는데 거기에 형과 누이동생 둘이 6.25 전쟁 발발 당시 피난을 나오지 못해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한 번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

락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청을 했다. 선임하사는 주임장교에게 다녀와서 혼자 가지 말고 중사 한 명을 차출해서 함께 다녀오라고 승낙을 했다. 나는 즉시 칼빈소총을 메고 중사에게 보고하고 함께 체부동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광화문 일대는 아무 것도 없는 완전 폐허로 변해버렸다. 오직 중앙청 건물만이 건재할 뿐이다. 중앙청 앞에서 전차길을 따라 내자동에서 우리 집이 있는 체부동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이 곳은 기와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통적 한옥마을이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채 6.25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골목길을 돌아 드디어 우리 집에 당도했다.

대문도 열려 있고, 인기척도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섬찍한 기분이 든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문간방은 방문이 열린 채 비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빈 집의 상태가 꽤 오래 된 것 같이 보였다.

안방과 건넌방 가운데 마루에 있던 피아노도 보이지 않고 먼지투성이의 썰렁한 빈집이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옆집 대문을 두들겼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윽고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내가 몇 년 전 경

북고등학교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 아주머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군복에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있는 젊은이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다.

“내가 몇 년 전 이 집에서 살던 경북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반갑게 손을 잡아준다.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는 절망적이었다.

형은 집에 숨어 있다가 누가 밀고를 했는지 인민문화부에서 와서 끌고 가버렸으며 누이동생 둘은 불광동 쪽으로 부역에 차출되어 다녔는데 근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모할머니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결국 아사 상태로 돌아가셨으며 동리 사람들이 사직동 공원주변 공터에 가매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귀뜸 해준 것은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와서 우리집을 둘러보고 부역한 집이니 역산가옥으로 처리해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체부동 집은 누이동생들 집이 아니라 엄연히 아버지 소유이고 아버지는 우익단체장이고 어머니도 부인회장인데 무엇이 어째서 역산가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민다.

“내가 다시 체부동에 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통에 교묘히 목숨을 부지한 공무원이란 자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군인의 집을 역산이니 뭐니 하고 이유를 달아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 이 총으로 배때기에 총구멍을 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 달라고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체부동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은 전쟁이 불러일으킨 일들이다. 묵묵히 중사의 뒤를 따라 부대로 돌아오는 길은 걱정과 분통이 교차한다. 사람마다 타고 난 운명이 있으니 살 운명이면 살 것이고, 죽을 팔자면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체념해버리자고 생각을 가다듬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어둡기만 했다.

부대에 돌아오니 저녁때가 됐다. 나 때문에 온종일 수고한 중사를 모시고 어제 저녁에 호기를 부리던 목로주점을 다시 찾았다. 오늘은 기분도 울적한데다 하루종일 걸어 다녀서 그런지 꽤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안주와 막걸리를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밀가루 바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와 앉았다.

“실컷 마셔라. 그리고 슬픈 사연이 있으면 막걸리로 씻어버려라” 하고 여자에게 연신 막걸리를 부어 줬다. 이 여자도 남편은 행적이 묘연하고 늙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시

고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체부동에서 굶어서 돌아가신 이모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야전점퍼에서 돈을 잡히는대로 잡아 여자에게 쥐어주고 자리를 떴다.

오늘도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제는 적선지가요, 오늘은 따블로 적선을 했으니 틀림없이 두 배로 유경이리라 하고 중얼거려 본다.

다음날부터 서대문에서 성북동에 파견근무를 명받았다.

왜 그곳에서 지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성북동 일본집에서 2~3일 보초근무를 한 것이 나의 진중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때 일이 뚜렷이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다.

*

북진

서울에 입성한지 일주일이나 된 10월 10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북진명령이 떨어졌다.

38선을 넘어도 좋다는 얘기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미국 정가의 온건파는 북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북진통일만이 유일무이한 한국전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38선을 돌파하고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은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17포병대대는 사단의 중앙부대를 따라 38선을 돌파, 북녘 땅 구화리라는 곳에 당도했다. 이것이 10월 11일이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가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는 것이 침략의 뜻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 봤다. 인민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38선을 넘어 서울로 쳐들어 온 것이 바로 엇그제 일이 아닌가! 이것으로 더 이상 국제법적으로도 정해진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는 38선을 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넘고 있는 이 38선 이북으로의 전진은 정당한 통일의 염원을 구현하는 대역사인 것이다.

구화리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동안 눈을 감고 감격적인 이 순간을 음미하며 진중기에 기록했다.

“이제는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 부대는 구화리를 떠나 시변리라는 곳으로 진격을 했다. 시변리에는 인민군 포병부대 창고가 있어 우리는 여기서 숙영을 하게 됐다. 낙동강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

오던 보병부대가 보이지 않아 물어봤더니 미군의 수송수단에 의해 우리보다 앞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시변리에서 10리쯤 떨어져 있는 야산 옆 논두렁길에 소련제 트럭이 새것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그곳에 가보니 아주 새 차인데다가 트럭열쇠까지 꽂혀져 있다. 아마도 국군의 진격이 너무 빨라 손쓸 겨를도 없이 차량을 버린 채 산을 타고 도망친 듯 하다. 운전초보인 내가 몰고 오기로 하고 시동을 걸었다. 간간히 고참운전병들에게 기아변속, 핸들조작, 출발, 정지 등 아주 초보적인 운전만 배운 내가 큰 트럭을 꼬불꼬불한 논두렁 좁은 길로 몰고 나온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건 뒤, 기아를 1단에 넣고 서서히 액셀레이터를 밟으며 클러치 페달을 때니, 덜커덕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렸다. 다시 또 시도해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출발은 했으나 핸들 잡기에 정신이 없어 기아변속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앵앵거리며 1단 기아로 10리길을 몰고 숙영지로 돌아오니 걸어서 오는 시간만큼 지체됐고, 너무 긴장한 탓인지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여하튼 처녀출격에 대형트럭을 그것도 좁고 꼬불꼬불한 논두렁길을 몰고 왔다는 것이 대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틀을 시변

리에 머무른 뒤, 신계를 거쳐 수안으로 진격을 했다. 정보 주임장교 강대위는 수안에서 조금 떨어진 곡성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했다.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계시던 어머니와 가족을 데려왔다. 이 재회의 모습이 감동적 드라마의 한편 같이 보였다. 17일에는, 상원으로 진격해서 이곳에서 평양 입성을 기다리게 됐다. 자치대라고 말하는 이곳 마을 사람들이 정치보위부 소속 악질 2명을 잡았으니, 빨리 즉결처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선량한 부락 사람들에게 꽤나 못되게 굴었던지 자치대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에 이글거린다.

18일에 다시 진격을 해서 평양 시가지 남쪽, 비행장 쪽 언덕반이 부락에 도착, 이곳에서 숙영을 하게 됐다. 누가 귀뜸을 해줬는지, 바로 인근에 평양 맥주공장이 있고 창고에는 산더미 같은 맥주 박스가 쌓여있다고 한다. 즉시 보고를 드리고, 노획한 소련제 트럭을 몰고 맥주공장으로 갔다. 창고에는 아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맥주 박스가 쌓여져 있었다. 즉시 트럭에 나무로 된 맥주 상자를 가득 싣고, 적재함에 천막을 쳐서 보이지 않게 했다. 저녁에는 평양입성을 기다리며 회식을 했다. 그리고 가져온 맥주를 취할 때까지 마셨다. 이때 체험한 것인데 7병 정도 마시면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마시면 1병당 한번씩 소변이 보고 싶으며, 12병을 넘어가면 헛바닥에서 “리을”자 발음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쓰러져 자다가 몹시 목이 말라 일어났다. 맥주를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것 같았다. 최전선에서 고급맥주로 취해볼 수 있는 것도 서부전선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중부 전선과 같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17포병대대에 배속된 것을 새삼 고맙게 느꼈다.

＊

평양 입성

10월 20일 아침에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평양시내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아~ 드디어 적의 수도 평양에 입성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서울 입성 때 느꼈던 뭉클했던 감동과 지금 가슴에 다가오는 감격은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서울은 적에게 강탈당했던 우리의 수도를 탈환했다는 감동이었으며, 지금 평양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야 통일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감격인 것이다. 우리 부대의 차량행군은 평양비행장 서쪽을 지나 폭격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파괴되어 엉켜버린 대동강의 철교를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미 육군 E 공병대대가 설치했다는 부교를 넘어, 그 유명한 모란봉 공원 산길로 들어섰다.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이 있었는지, 곳곳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모란봉 공원을 넘어 시내로 접어드니 여기가 평양 기생으로 소문난 권변이 있던 선교리라고 했다. 선임하사도 이곳 선교리 출신이라고 들었다. 제법 뼈대가 웅장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어 옛날에는 부자동네로 불렸다고 한다. 차량행군은 시가지 중심지를 지나, 우리가 머무를 숙영지로 향했다. 평양의 지리를 전혀 모르니, 우리의 숙영지가 시내 어느 부근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우리가 자리잡은 숙영지 옆 담장이 서문고녀 담장이라고 했다. 서문고녀는 서울의 여고에 비유하자면 이화여고와 같은 사립명문이었다고 한다. 숙영준비를 끝내고, 선임하사를 따라 정보과 사병 5~6명은 서문고녀 정문을 통해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군인들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 학교 안으로 들어오니 인민복에 레닌 모를 쓴 중년쯤 된 사람이 직원실 쪽에서 일어나와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 이 학교의 교무주임 같은 직책을 가진 자였으며, 자기 혼자서 학교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학교는 전쟁의 피해가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이었으나, 담장 쪽 운동장 주변은 방공호와 산병호(散兵壕)로 둘러싸여, 일단

유사시 능히 방어전투가 가능하게끔 축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대강당을 보자고 했다. 강당 안에 들어서니 정면 무대 한 가운데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김일성이 사진을 붙여 놓고 있어!”

선임하사의 일갈에 우리는 칼빈총을 연발에 놓고 초상화에 대고 일제 사격을 가했다.

“따따따 탕탕”

실내에서 쏘아대는 연발 사격 소리는 야외에서 들던 소리보다는 월등 큰 것 같았다. 고막이 먹먹해 질 정도다. 초상화는 박살이 나고 벽에서 떨어져 나뒹굴었다. 교무주임이라는 자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다.

“똑바로 하라우!”

선임하사가 소리쳤다. 이것으로 우리의 서문고녀 투어는 끝이 났다. 평양에 주둔한 다음 날 아침, S-2에 3명의 병력 차출 지시가 있었다. 무슨 임무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은 사람의 지시라고 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숙소에서 빈둥거리는 것 보다는 평양 시내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을 했다.

아침 10시쯤 차출병력 10명을 실은 트럭은 쪼차를 뒤따라 숙영지를 떠났다. 우리가 평양으로 입성하던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계속 달렸다. 남하하는 길은 도로가 넓고, 잘 가꾸어진 것으로 보아 평양에서 사리원 개성으로 이어지는 국도인 것 같았다. 오랜만에 아무 부담 없이 달리는 트럭에 흔들리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북쪽의 산야를 바라보는 마음은 가을의 쾌적한 기후 조건과 맞물려 상쾌하기 그지없다. 도로상에는 간혹 북상하는 미군 군용차 외에는 다른 움직임이 없어 먼지도 나지 않는다.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달려서 도착한 곳이 황해도의 사리원이었다. 사리원에서 가져간 주먹밥에 특별부식을 먹고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사리원 시가지를 지나 얼마 안가서 선도(先導) 쪼차는 소리로 접어들었다. 이 좁은 지방도로를 15분쯤 달리니 작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동네가 나타났다. 이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목적지였으며 인솔장교의 가족이 무자비하게 숙청되었던 고향 OO리라는 곳이다. 동네 가운데에는 제법 넓은 광장이 있었고, 정면으로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건물의 깃발 게양대에는 아직도 인민공화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차량에서 내려서 집합을 한 우리에게 인솔장교가 직접

명령을 하달했다. 3명 1조로 편성해서 동네 언덕 3면에서 가가호호를 수색 전 부락민을 이곳 광장으로 집합시키라는 지시다. 즉각 우리는 전 부락을 수색, 모든 부락민을 인민 위원회 광장으로 집결시켰다. 족히 100명은 넘는 것 같았다.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부락민들 앞에 인솔장교는 철모와 라이방을 벗고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내가 몇 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고 알몸으로 쫓겨난 OO올시다. 아버님이 그때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여러분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탈출했으며, 천신만고 끝에 국군장교로 임관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장 연설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다. 부락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흑색으로 변해 체념하는 듯 머리를 숙이는 사람, 만면에 희색을 띠면서 반기는 사람, 순식간에 광장은 희비가 교차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인솔장교는 눈물을 닦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지시가 떨어졌다.

“지금부터 내가 지적하는 자는 왼쪽에 있는 방공호로 끌고 가라!”

한명 한명 방공호로 끌려가 덮개가 없는 호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가 30명 정도가 됐다. 이때

“내가 권총을 발사하면 방공호를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한다.”라는 외침과 동시에 “탕”, “탕” 45구경 권총이 불을 뿜었다. 우리는 연발장치로 된 소총의 방아쇠를 무의식중에 잡아당겼다. 다다다 탕탕탕 한참 정신없이 방공호를 향해 쏘아댔다. 사격이 멈춰지자 죽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 잠잠해졌다. 그리고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적막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광장에 정렬했다. 인솔장교가 손을 들어 언덕 쪽으로 보이는 제법 큰 과수원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저 집과 과수원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내가 저 집에서 자랐다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솔장교가 친인척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이 동네를 떠났다.

저녁때가 다 될 무렵,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트럭에 앉아 착잡한 상념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봤다. 어떻게 보면 통쾌한 복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꼬리를 물고 쳇바퀴 돌듯 끊이지 않을 악순환의 비극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러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니 동족상잔의 이 비극을 불러온 장본인 김일성에 대한 증오감이 내 가슴속에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

압록강을 향하여

평양에 주둔한지 3일 만에, 북진명령이 떨어졌다. 평양시 가지를 지나 북으로 달리는 차량에 몸을 실은 채 남북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감동 속에서 불현 듯 부모님, 가족들의 생각이 떠올랐다.

피난길에서, 안동고향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제, 멀지 않아 남북통일이 되면 만나 뵈게 되겠지 하고 눈을 감고 시름에 잠겼다. 우리부대는 순천이라는 곳에서 숙영을 하게 됐다. 민가를 접수해서 숙소를 정하고 쉬고 있는데, 하늘에 수송기 대편대가 지나가면서 낙하산이

하늘에 수를 놓는 듯 펼쳐진다.

아름다운 광경이다.

일제시대 전쟁 때, 일본군이 불렀던 군가가 생각이 났다.

“남색보다 더 푸른 저 창공에

찰나에 퍼지는 백선(白扇)과 같이

보라! 낙하산은 하늘을 간다.”

바로 이군가의 뜻과 같은 멋진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평안남도의 북쪽 끝자락인 이곳 순천 쪽에 투하된 낙하산 특전대가, 기존의 지상군과 합세해 북진을 재촉한다면 머지않아 평안북도를 거쳐 압록강에서 대검을 씻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 이제야 이 땅에 통일과 평화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푸른 하늘에 전개되고 있는 낙하산 특전부대의 멋진 모습을 쳐다보며 들뜬 기분으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본다.

우리 부대는 다음날 순천에서 개천으로 이동했다. 청청강을 접한 평안남도의 최북단이다. 저 강만 건너면 평안북도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본다.

오늘이 선임하사의 생일이라 몇 명이 부식 조달차 숙영지에서 약간 떨어진 야산기슭에 있는 부락을 찾았다. 십여호의 작은 농촌 마을이다.

닭을 사러왔다고 하니 이곳에서는 닭을 놓아서 키우기 때문에 저녁때 닭이 스스로 닭장을 찾아들 때까지는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저녁때면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 한 마리에 시세대로 돈을 쳐 줄테니 우리가 칼빈총으로 쏘서 몇 마리 잡아 오겠노라고 말을 했다. 연세가 원을 넘긴 것 같이 보이는 닭주인 아저씨가 닭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시간나는대로 칼빈총으로 사격연습을 계속 했던 관계로 나의 사격솜씨는 만만치 않을 때였다. 한 마리를 쏘아 잡으니 닭들이 산 쪽으로 피해 올라간다. 따라가면서 또 한 마리를 쏘고 계속 산을 올라가는데 바로 5미터도 안 되는 소나무 숲 속에서 따라락 따라락 하고 다발총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때렸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는지 고막이 찢어지는 소리다. 엉겁결에 납작 엎드려 웅크리고 언덕을 굴렀다. 그리고 은폐할 곳을 찾아 총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응사를 시작했다. 바로 내 뒤에서 따라오던 닭 주인이 총에 맞았는지 앞쪽 언덕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다. 다발총 소리와 나의 응사 소리에 동네 쪽에 있던 전우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었다. “적의 기습이다.” 하고 외치며 전방의 동태를 살피니 닭 주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피가 낭자하고 꿈틀꿈틀 하는 것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엄호를 부탁하고 포복으로 소나무 숲속으로 접근해 갔다. 바로 자그마한 어린소나무 군락 뒷 쪽에 다발총 탄피가 수두룩히 떨어져 있다. 손을 대보니 아직 뜨끈뜨끈하다. 조금 전 이곳에서 쏜 것이 틀림없다. 다시 뒷거름질 치며 닭 주인아저씨를 보니 싸늘한 시체로 변해 버렸다. 참으로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죽는다면 문제의 당사자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왜 아무런 관계도 죄도 없는 닭 주인이 죽는단 말인가!

“야! 빨리 철수하자! 주변에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하고 전우들이 다그친다.

잡은 닭만 들고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우리는 급히 마을을 빠져 나왔다. 저녁에 쓰기 위한 생일축하용 닭 백숙의 조달이 애꿎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밤이 깊어가는 데도 잠이 오질 않는다. 애써 자려고 힘을 빼보고 복잡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머리를 흔들며 봐

도 정신이 더욱 초롱초롱해질 뿐이다.

깜빡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먼동이 텅다. 밖을 내다보니 선임하사가 앞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야, 군장을 갖추고 빨리 나와”라고 한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총을 메고 선임하사를 따라 나섰다.

골목길을 돌아 바로 옆 초가집 살창문이 달린 방 앞에 멈췄다. 문을 열고 그 곳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끌고 나오라고 한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니 소리없이 문이 열렸다. 여자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으며 옆에는 누군가가 자고 있었다.

나오라고 손짓을 하니 여자가 조용히 일어나 방밖으로 나왔다. 선임하사는 여자를 앞장세워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기슭의 제방둑 쪽으로 걸어갔다. 아직 꼭두새벽이라 인적은 없고 쌀쌀한 기온에 몸이 오싹해진다.

강둑위에서 선임하사가 여자를 보고 강둑 아래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다. 여자는 힐끗 선임하사를 쳐다보더니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둑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탕, 탕” 하고 선임하사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여자는 앞으로 꼬꾸라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선임하사의 눈에는 핏발이 서려 있었다.

말없이 선임하사의 뒤를 따라 숙소로 돌아왔으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저 긴장 속에서 오전을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인데 죽은 여자는 정치보위부의 핵심요원이었으며 자치대 청년들에 의해 붙들려 왔으나 모 장교가 조사한다고 데려가서 동침을 했기 때문에 선임하사가 분노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선임하사가 우리들에게 평소 북에서는 정치보위부요원이 가장 악질적이고 빨갱이 중의 빨갱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새벽에 일어났던 살벌했던 '해프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0월 28일 아침 식사가 끝나자 부대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영변으로 간다고 한다. 우리는 드디어 청청강을 건너서 평안북도 땅으로 들어갔다. 청청강은 강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물이 맑고 푸르다.

전쟁 초기에는 경상남북도의 일부만을 사수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반대로 적을 평북과 함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영변에서는 시내 변두리에 있는 큰 기와집을 숙영지로 정했다. 부엌에는 냉면을 뽑는 큰 나무틀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제법 잘 살던 집 같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냉면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우선 메밀을 맷돌에 갈아서 반죽을 하고 반죽을 한 메밀을 냉면 빼는 기계에 넣어 면을 뽑다. 솥에는 물을 끓여 기계에서 빠져 나오는 면을 삶아서 건져 놓았다.

한쪽에서는 닭을 삶아 살코기를 찢어 준비하고, 닭고기 국물과 동치미 국물을 혼합해서 냉면육수를 장만했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각자가 분담된 일을 맡아 열심히 준비한 결과 맛있는 냉면이 준비가 된 것이다.

영변에 와서 냉면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 자체가 추억거리지만 그 맛이 일품이니 포식을 하고 트림을 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혔다.

다음날은 정보과에서 주변의 지형정찰을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험한 산허리를 구비쳐 흐르는 강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

U자로 굽어드는 강과 산세가 겨울로 접어드는 철이지만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듯 눈 앞에 전개된다.

정자가 있는 곳이 있어 우리는 차를 내려 그 정자로 올라갔다. 사방이 병풍과 같은 가파른 바윗돌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천혜의 요새같이 보였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

면 이곳은 철옹성이라고 하는 성터이고 고구려 때 거란의 침략을 막으려고 성을 쌓았으며, 그 후 고려 때 계속 증축하여 4개의 산성으로 이루어진 요새지역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곳이 그 유명한 영변의 약산이라는 것이다. 약산이라면 진달래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소가 아닌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천재시인 소월의 시가 문득 생각이 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로 시작되는 이별과 정한의 승화라는 이 시의 2절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한일합방의 슬픈 현실을 회자(膾炙)하는 이 시에 나오는 “영변의 약산”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전쟁이 나에게 시련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듯 접하기 힘든 명소를 찾아볼 수 있는 뜻있는 기회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산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우리부대는 운산으로 이동했다. 영변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운산에 도착하니 우리

앞에서 북진을 계속해오던 보병부대의 많은 병력이 이 주변에서 북적대고 있었다.

전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해서 이곳에 집결중이라고 했다. 여기서 들은 바로는 인접 6사단 선봉부대가 초산에 도착해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중공군이 우리 전선에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1사단 보병부대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일단 이곳 운산에서 다음의 작전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라고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의 염원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답답하고 뒤숭숭한 하루를 운산에서 보내고 우리 부대는 다음날 사단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박천으로 이동해서 맹중리라는 작은 부락에 주둔지를 정했다. 이곳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서해안 쪽으로 가까운 평야지대인 것 같았다. 남쪽은 전쟁통에 농사를 짓지 못했으나 북쪽은 농번기에 전쟁의 소용돌이 밖에 있어서 그랬는지 추수가 잘 된 것 같아 보였고, 논마다 벼 가마가 가지런히 잘 정돈돼 쌓여져 있었다.

농사지은 벼는 이런 식으로 쌓아두어 공출당하는 것 같았다.

*

중공군의 개입

11월 25일.

중공군의 대부대가 1사단 동쪽에 위치한 7사단과 8사단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현재 7사단은 완전 포위된 상태이고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후퇴를 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직 1사단 전면은 이렇다 할 접적(接敵)이 없다고 한다. 우리 포병부대는 포격도 없는 대기 상태에서 폭풍의 전야 같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정보과 병사들에게 박천군 동남면 동하리라는 곳에 있는 정미소에 가서 밭에 있는 벼를 정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우리는 GMC 트럭을 몰고 현장으로 갔다. 정미소가 있기는 하지만 발동기가 고장이 나서 정미기계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GMC 뒷바퀴 타이어를 빼고 뒷바퀴 휠을 회전시켜 정미기계와 휠에 피대를 감아 동력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는 즉시 트럭의 동력으로 정미기계를 돌려 정미작업에 들어갔다. 말이 쉬워 정미작업이지 실제로는 벼 가마를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며 정미한 쌀가마를 다시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중노동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 모두는 녹초가 돼버렸다. 다음날도 정미작업이 계속 됐다.

이틀 동안 주변에 쌓인 벼를 정미하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눈썹이 쌀겨, 분진으로 할아버지 같은 몰골로 변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 웃어댔다. 몸을 씻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탈진상태가 되었다.

전투라면 몰라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죽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정미작업을 해야 하는지 불평을 했더니 고참이 하는 말이 이제 중공군이 곧 공세로 나올 것이고 우리는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니 그렇게 된다면 여기 쌓인 벼는

우리의 적이 긴요하게 쓸 군량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미작업을 강행해서 우리의 군량미로 비축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으나 우리가 정미한 쌀 400가마가 넘는 양이 그 후에 들은 바로는 홀병사업(恤兵事業)인가 뭔가 하는 목적으로 군량미가 아니라 서울로 실려가 누구인가의 배를 불리는 쌀로 둔갑했다고 한다. 쌀의 향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쉬웠을 뿐이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부대는 12월 2일 영유라는 곳으로 후퇴하여 이틀간 머물렀다. 그리고 드디어 평양으로 후퇴를 했다. 전투다운 전투는 없고 후퇴만 거듭한 것이다. 12월 5일 평양의 대타령1리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안동고등학교 배속장교였던 임지호 소령을 만나게 됐다. 우리가 학도지원병으로 출정할 그 때 함께 인솔장교로 왔다가 현역장교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서부전선에만 근무했었다고 한다.

저녁때이고 시간도 있다고 해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어렵게 조달해온 소주를 곁들여 상도 없이 바닥에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임소령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다. 본인이 군단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전투 정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조망해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후퇴만 해오던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한국군이 청천강을 건널 무렵인 10월 25일 이전으로 보고 있었으며 투입된 병력은 적어도 30개 사단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중공군이 오래전 소리 소문 없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진출해 연합군에게 기습공격을 가하기 위한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39도선을 방어선으로 구축한다는 작전명령을 하달한 바 있었지만, 이미 이 방어선은 중공군의 공세로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아마도 38도선이 최종방어선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사휴의(萬事休矣), 중공군의 개입이 이 나라 통일의 꿈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죽음, 파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하기

야 중공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빨갱이 국가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는가.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소주를 들이켰다. 임소령의 무운을 빌며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힘없이 쳐다봤다. '세상사는 이렇게 헛되게만 돌아가는 것일까?' 하는 회의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아직 캄캄한 꼭두새벽인데 "기상"이라는 소리가 시끄럽다.

긴급히 대동강을 넘어 후퇴를 한다고 한다. 밖은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섭게 춥다. 방한복과 방한모로 중무장을 하고 이동준비를 마친 뒤, 타고 갈 트럭위에 올라탔다. 먼동이 틀 무렵, 우리는 감격 속에서 평양으로 입성하던 대동강 부교를 이번에는 슬픈 마음으로 반대방향으로 건넜다. 이 부교는 아직도 미 육군 공병 E중대가 지키고 있었다. 대동강을 건너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비행장은 큰 불에 휩싸여 있었다. 철수하면서 불을 질렀는지 불길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이 보였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 평양을 버리고 남으로 후퇴하는 착잡한 심정 등이 눈물과 콧물, 차량먼지와 뒤엉켜 물결이 말이 아니다. 트럭은 강추위를 뚫고 사리원 쪽으로 쉬지 않고 달렸다. 너무 추워서 용

을 쓰고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오줌이 마려워 죽겠는데 칸 보이로 달리는 차량행군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고 버티기로 했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도리없이 싸야겠다' 결심을 하고 옷 입은 채로 하복부에 힘을 켰다. 나올 듯한데 도무지 나오질 않는다. 좀 더 힘을 줬다. 마찬가지로. 힘을 주면 주는 만큼 폐쇄발부가 조여지는 모양이다. 차량이 덜컥거리며 달리는 가운데 소변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몸소 터득한 셈이다. 운이 좋아 차량행렬이 멈췄기 때문에 불상사를 모면하게 됐지만, 일상의 생리적인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준비성 없이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

부대가 사리원에 도착해서 큰 초가집을 숙소로 정하고 쉬고 있는데, 치안대라고 쓰여진 완장을 한 사람들이 중공군이라는 자를 포박한 채 끌고 왔다. 옷은 숨을 누빈 녹색 전투복이며, 소총도 없고, 몰골은 거지새끼와 비슷하다.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노라고 말하고 인수를 해서 포로로서의 취조를 시작했다. 신의주 태생의 고참이 옛날 만주 안동에 왕래한 일이 있어, 중국말을 좀 한다고 해서 그의 취조로 심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소속을 물었는데, 9로

군 소속이라고 한다. 9로군이라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을 괴롭힌 8로군과 9로군의 전통있는 부대 아닌가. 이 거지같이 남루하고 외소하며 뼈만 앙상한 젊은 것이 9로군 소속 병사라고 하니 믿겨지지 않는다. 하기가 명령일하에 수류탄을 두 손에 들고 벌떼같이 앞으로만 치닫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멋있는 군복, 철모, 체격같은 외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1대1로 마주 대하고 보니 겁먹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속과 성명 외에는 무슨 말을 물어도 '모른다'로 일관한다. 중국말이라면 노래에 나오는 '돈이가 많아서 명호아'라는 '명호아', 그리고 요리 이름 '난자완스', '라조기' 밖에 모르던 내가 여기서 '부지도'라는 중국말을 배우게 됐다. '모른다'라는 뜻이다. 정말 몰라서 '부지도'인지 포로의 행동규약을 지키기 위해 모른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동식 전화기로 전기충격을 주는 방식의 고문을 해봤다. 원티티(1.T.T)선이라고 하는 전화선을 나선으로 까서 손가락에 감고 물에 적신 뒤 신호 핸들을 돌리면 강력한 전기 쇼크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마치 개구리가 다리를 쭉 뻗는 것 같이 뻗청다리가 되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나뒹군다. 조금 있다 정신이 들어 물어보면 또 "부지도"라고 한다. 몇 번을

반복해봤으나 마찬가지로 반응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심문은 끝났다. 낙오되었거나 부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공군이 이 부근에서 38도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접전하지 않고 조용히 깊은 산을 타고 목적지에 당도해 숨어 있다가 야밤에 숫적 우세를 앞세워 기습을 감행하는 것이 중공군의 전술이니 여기에 소홀히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북의 최종 숙영지인 사리원을 떠났다. 12월9일, 남으로 달리는 차량행렬 양쪽 길에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인파가 줄을 잇고 있었다. 해주가 가까워질 때, 피난민들이 폐죽음을 당한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미 공군의 오폭으로 인한 참화인 것 같았다. 목불인견이란 이런 광경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아직도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시체 타는 냄새 속을 지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개성으로 달렸다. 죄 없고 힘없는 양민들이 살아보려고 피난길에 올랐을텐데, 어처구니 없는 오폭으로 저렇게 죽어가다니, 전쟁의 죄악 그리고 그 실상을 뼈저리게 느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개성을 지나면서 멀리 우뚝 솟아있는 송악산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개성 송도중학에 다니던 시절 송악산 아

래 광문암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삼촌집에서 기식(寄食)했으며, 주말이면 자주 저 송악산을 올랐던 지난날이 주마등 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의 친인척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겠지만 찾아보지도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개성을 통과했다. 우리 부대는 장단을 지나 임진강을 건넜다. 이곳이 38도선이다. 38선이 또 다시 남북의 경계선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하늘에는 B-29 중형폭격기가 편대를 지어 비행운을 내뿜으며 북으로 날아가고 있다.

‘제발 중공군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전략폭격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다오!’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소원을 빌었다.

우리가 주둔한 곳은 임진강 하류의 남쪽에 위치한 광활한 둔치이며 옛날부터 토지가 비옥해 농사가 잘되어 잘사는 농가가 많은 동네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농주를 담근 후 이것을 증류시켜 만든 소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진지구축 등 힘든 일과가 끝나면 동네에서 구해온 소주를 반합뚜껑으로 벌컥벌컥 들이키고 꿀아 떨어져버린 일이 가끔 있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술먹는 것은 배우는가 보다. 그러나 반합통 같은 큰 용기로 그것도 '원샷'으로 꿀꺽한다는 음주패턴은 좋지 않은 음주버릇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침에 술이 깼 때, 골통이 덜렁덜렁하고 속이 쓰려 건디기 힘들 때면, 이제 다시는 폭음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다시 술을 퍼마시는 우를 범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 무렵에 우리 병사에게도 양담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 1사단이 미 1군단 예하부대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보급품으로 나온 것 같았다. 열 갑을 한 보루라고 했는데 '럭키스트라이크' 또는 '카멜'이라는 필터 없는 담배였다. 당시 나는 담배를 피우질 않아 그대로 도망뺑이라고 불리는 둘러메는 가방에 모아 두었다.

때때로 담배 골초인 고참이 담배가 떨어지면 달라고 해서 한 갑씩 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가 하는 다른 고참의 눈총을 받았을 때 괴로웠다. 내 것 주고 뺨맞는 격이니 내가 담배를 피워버리면 줄 것이 없어 문제는 풀릴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궁리 끝에 담배를 피우기로 결심을 했다. 첫 시도에서 담배 연기가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기관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자극

을 받았다. 눈물 뿐 아니라 콧물까지 나온다. 독하게 마음 먹고 남도 피우는데 내가 왜 못 피우느냐 하고 반복 훈련을 한 끝에 결국은 담배를 피우게 됐다. 고참들의 눈총을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어느덧 담배는 전쟁터에서 시름을 달래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벗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12월도 다 지나가는 20일경 전방 CP에 파견되었다. 이곳은 12연대 임진강 방어 전면이며 대대 포사격을 지휘할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백설이 뒤덮힌 임진강 북쪽을 바라보며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관해 들은 바 얘기를 되새겨봤다. 캄캄한 밤중에 팽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며 숫적 우세를 앞세워 물밀 듯 밀려온다고 한다. 팽과리소리, 피리소리에 중공군은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군은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져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수세기전 고전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전법 같은데 최신무기와 전술운용을 자랑하는 미군도 뚝족한 대응책 없이 후퇴를 거듭한다고 하니 병법의 요체가 무엇인지 헛갈릴 뿐이다. 만일, 중공군이 총공세로 임진강을 돌파 남하를 강행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후퇴를 해서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한강 이남이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수도서울이 수복된지 몇 달도 안돼서 적의 수중으로 들어 가버리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바야흐로 막이 열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전방 CP에서 내려오니,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전방 순시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불길한 전조인 것 같아 웬지 꺼림칙하다.

천리타향 이곳에 와서 8군 사령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분투했는데, 난데없는 죽음이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선에서는 크리스마스 같은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지만 우리 대대본부에서는 미군 고문관이 상시 파견되어 함께 지내기 때문에 고문관의 숙소에 매달아 놓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 무렵, 불원간 중공군의 총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대는 여기에 대비해 결전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우리 정보과도 포진지를 접하고 있는 인근 부락에 대한 수색작전, 경비업무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2월 31일 중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연말연시를 기해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한다는 얘

기다. 오전 중 소규모의 포격으로 일관하던 전포대의 포문이 오후 늦게부터 최대포격 명령으로 쉴새 없이 불을 뿜어댔다. 대대본부가 전포대 우측 전방에 위치해 있어 포격의 파열음으로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음에 시달렸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이때 동네에 있는 자치대의 청년 몇 명이 와서 우리 동네 어느 집에서 불온분자들이 모여 중공군이 쳐들어 올 것에 대비해 환영의 준비를 모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 우리는 선임하사 외 3명으로 조를 짜고 자치대원을 따라가서 모의 장소를 급습했다. 포성은 천지를 진동하고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적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 악에 받쳐 눈알이 확 뒤집혔다. 그대로 가차없이 몽둥이 찜질을 퍼 부었다. 어느덧 그 요란하던 포성이 멈춰버리고 주변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적막이 흐르니 웬지 섬뜩해진다. 급히 대대 CP쪽으로 달렸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치했던 CP는 철수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다. 주변을 살폈다.

미 고문관이 기거하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달려 있던 집에는 쪼차가 그대로 서 있고, 방안에는 인기척이 있었다. 방문을 두들겼더니 고문관과 당번이 자다가 일어났

는지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나고 묻는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되지도 않는 영어로

“CCF (차이니스/코뮤니스트/포쓰) 캄잉”

이라고 소리쳤다. 고문관 스미스 소령은 즉시 쥘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스미스 소령과 당번 그리고 우리 세 명이 쥘차에 올라탔다. 골목길을 라이트도 켜지 않고 천천히 몰고 큰길 쪽으로 나오니 보병 병력이 양쪽 길에 깔려 의정부 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보병부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쥘차를 서서히 몰았다. 10분정도를 작은 조명등에 의존해 보행속도 정도로 움직여 완만한 언덕을 넘으니 넓은 개활지가 나타났다.

이곳에는 꽤 많은 보병이 집결하고 있었고, 재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개활지를 지나 남쪽으로 꼬부라지는 언덕길에 우리 쥘차가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전방 지근거리에서 우리 쪽을 향해 소총의 일제 사격이 가해졌다. 불뿔는 소총소리로 미루어 적의 숫자는 1개 소대 정도로 보였다. 우리보병의 수는 2개 대대 이상은 될 것 같았는데 뿔뿔이 흩어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스미스 소령과 우리는 엉겁결에 차에서 뛰어내려 도로 옆 도랑쪽에 엎드려 형세를 지켜봤다. 총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한참을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는 다시 쥘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기습을 당했던 곳을 지나 의정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였는데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꽤 긴장을 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스미스 소령의 차량과 그의 침착함 덕분에 우리 일행은 무사히 의정부에 도착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우리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미군부대 천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주가 보이고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피로감이 엄습한다. 스미스 소령의 주선으로 우리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야전에서 미국식 아침식사를 얻어먹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바른 것, 계란 스크램블에 베이컨 구운 것, 그리고 커피! 죽을 뻔했는데 이게 웬 떡이나 하고 정신없이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니 힘이 용솟음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우리는 다시 스미스 소령이 모는 쥘차를 타고 서울 도심 을 관통해 문산쪽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의정부에서 스미스 소령이 1사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사단 재 집결지를 쉽게 찾았다. 17포병대대는 105밀리 야포 전부를 그대로 중공군에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후퇴를 했다고 한다. 한참 포를 쏘고 있는데 중공군이 수류탄을 던지며 물

밀 듯이 밀려왔다는 것이다.

유단포는 통상적으로 보병보다는 몇 킬로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이 전포대에 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공군의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기습공격에 전방의 보병부대가 속수무책 급히 병력을 빼버렸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었다고 한다.

대대 CP는 다행스럽게도 아무 손실 없이 무사히 현 재편성 CP에 도착했다고 한다. 공중에서는 미 함재기가 꼬리를 물고 공격을 하고 있다. 공격목표는 우리 대대가 놓고 온 105밀리 곡사포라고 했다. 자칫 우리의 포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괴해버린다는 것이다. 50년 12월 31일에서 51년 1월 1일에 걸친 2일간의 중공군 대공세는 1사단에 재편성이라는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말았다. 지금 중공군의 병력은 40만이라고도 하고 60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미군이 여기에 대응해 증원병력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서울을 다시 버리고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던 차에 1월 3일 후퇴명령이 떨어졌다.

*

1.4 후퇴

서울을 버리고 후퇴를 한다고 했다. 한강이 방어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37도선까지 후퇴를 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침통한 마음으로 트럭에 올라탔다. 차량행군은 신촌을 거쳐 마포쪽으로 와서 잠깐 쉰 후 여의도를 연결한 부교를 통과해서 시흥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멀리 바라보이는 삼각산의 그 수려한 모습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 자 하련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뚱말뚱 하여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며 읊은 김상헌 판서의 시가 생각이 났다. 다시 우리는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우려와 원통한 마음으로 안양에 도착해 숙영을 하고 다음날 다시 서둘러 안양을 출발, 남으로 계속 후퇴했다.

우리가 최후로 도착한 곳은 안성이었다. 안성은 37도 방어선이 지나는 곳이다. 후퇴를 해도 너무한 것 같았다. 결국, 중공군의 총공세가 우리의 방어선을 38도선에서 37도선으로 밀어버린 셈이다. 들리는 바로는 맥아더 사령관이 만주폭격을 위시해서 학전전략으로 중공군의 예봉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학전은 반대하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적의 보급로를 연장하는 후퇴와 방어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자칫 37도선이 휴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굴욕적인 뒷거래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수백만의 인명 손실, 철저한 파괴, 이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놈이 죄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챙기는 있을 수 없는 “네고(NEGO)”가 목숨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백척간두에선 나라처지를 개탄하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울증 같은 증세가 몸을 감싸 감기, 몸살, 편도선으로 인한 고열,

오한으로 1주 이상을 병상신세로 지냈다. 먹지 못해 깡마르고 눈의 동공조차도 초점을 잃어버린 듯한 허탈 증세 속에서 헤맸다.

1월도 다 지나갈 무렵, 눈이 많이 내려 천지가 하얗게 뒤덮였다. 이때 모든 장병은 흰색으로 위장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미군은 겨울용 파카를 뒤집어 입으면 안쪽이 흰색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캠프라지(camouflage)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치스러운 위장복이 있을 턱이 없으니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위장을 해야만 했다. 정보과 전우들은 일단 피난을 떠나버린 빈집들을 뒤져 흰옷들을 수집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백의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이 많았다. 어떤 자는 여자의 흰 치마를 두르고 나왔으며, 여자의 속옷 고쟁이라는 가운데가 터진 옷을 입고 나오는 자도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몰골을 보고 오랜만에 배를 잡고 웃어댔다. 나도 본의 아니게 고쟁이로 위장을 했다. 남들이 나만 보면 웃어대니 이 삭막한 전쟁터에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어느 집안이나 가족이 피난을 떠나버리면 할머니는 따라 나서지 않고 혼자서 집을 지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았다. 위장옷을 구하다가 어느 집에서 실성한 것 같은 할머니가 안방구석에 웅크리고 있

는 것을 보았다. 혼자서 웃다가 울고를 반복하더니 우리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먹지 못해 탈진한데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착란증이 생긴 것 같아 보였다. 서울의 채부동집 이모할머니도 이렇게 불쌍하게 연명하다가 돌아가셨나 생각하니 가슴이 저러왔다. 모든 것이 전쟁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다.

안성에 주둔한지 2주쯤 지나자 우리 부대 옆에 터키군이 진을 쳤다.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눈인사도 나누게 되고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했으나 영어도 서로가 신통치 않아 뜻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들 중 장교는 영어를 할 줄 아는가 해서 물어 봤더니 영어를 한다고 했다. 영어로 땡큐(thank you)가 터키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다. 이국만리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태스쿨 에텔램”이 고맙다는 말이라고 했다. 다음부터는 터키 병사만 만나면 “태스쿨 에텔램” 하고 인사를 했다. 맞는 발음인지 이제껏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외우고 있다.

터키군은 며칠 후 최전방으로 이동해 중공군과 맞부딪치

게 된다고 한다. 그들의 무운장구를 빌었다.

1월이 다 지나도록 최전방에서는 이렇다 할 접적상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15연대 수색대에 있는 고향 친구 두 명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 말에 의하면 중공군의 37도선 일원에 걸친 공세가 20일 경이라는 첩보가 있어 정찰 및 수색작전에 참가했었으나 적의 경계망은 감지되었지만 공격의 주력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연대본부에 공격징후가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실을 정보과 주임장교에게 보고했더니 이것은 틀림없이 중공군 보급로의 연장으로 인한 전쟁물자 수송의 차질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공군은 대부분의 전쟁물자 수송을 사람이나 말과 같은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한의 엄동설한 기간에는 원활한 수송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더구나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어 야간이나 산악을 이용하는 제한된 이동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자동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간에 델 수가 없는 궁지에 몰린 것 같이 보였다.

이것이 중공군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고 이

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37도선으로 후퇴해서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작전계획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공군의 공격정후가 없자 우리 보병의 위력정찰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한 달 이상이나 37도선에서 교착상태를 지속하던 전선이 서서히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간간이 적의 반격도 있었으나 결사적 저항은 없는 것 같았다.

2월 중순, 우리 부대는 경기도 시흥까지 진출해서 멀리 서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결국 피아(彼我)는 한강을 경계로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적은 한강 이북의 서울 중심부를 점거하고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과에 한강 기습의 정찰임무가 부여됐다. 우리는 보좌관과 중사, 그리고 운전병과 관측병으로 내가 차출이 돼서 4인1조로 짚차를 타고 OB맥주공장을 지나 영등포역 쪽으로 달렸다. 영등포역에서 한강 제방 쪽으로 꺾어 제방 위 도로로 접어들었다.

여기서는 한강북쪽의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때 멀리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적의 직사포 소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쇠-엑 쇠-엑 하는 포탄이 바람

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운 좋게 우리 짚차를 비켜 지나갔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운전병이 전속력으로 짚차를 몰았다. 다시 직사포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포탄이 바로 뒤쪽으로 빗나갔다. 이리다가 박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눈을 감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제방 밑으로 빠지는 길에 거의 당도했을 때 또 한 방의 직사포탄이 귀를 스쳤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긴 우리는 차를 세운 채 한 참동안 났을 잃고 앉아 있었다. 숨을 돌리자 짚차를 OB맥주공장 쪽으로 몰았다. 중사가 여기가 OB맥주공장이니 들어가서 맥주가 있는지 뒤져보라고 제안을 했다. 우리는 맥주공장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큰 창고 같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하차해서 창고 철문에 달린 작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맥주가 보관되고 있는 대형탱크가 있는 곳이었다.

탱크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놀랐고 그 큰 탱크가 한 개가 아니라 일곱 개나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

그런데 탱크 밑 부분에 대형 철제 밸브(valve)가 있는데

이것을 열지 않고서는 맥주를 얻을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다. 밸브를 여는 방법이 없으니 허탕치고 부대 주둔지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중사가 와서 OB맥주공장에 다시 가자고 한다. 대형 밸브를 열 수 있는 렌치(wrench)를 준비했고, 또 용기로 5갤론짜리 스페어통도 깨끗이 닦아 10개를 준비했다고 한다.

우리는 낮에 갔었던 OB맥주공장 저장고를 향해 차를 몰았다.

탱크 밸브를 열려고 렌치를 들고 들어갔으나 누군가가 밸브를 열어 놓은 채 잠그지 않고 방치한 탓에 맥주가 거품과 함께 펄펄 쏟아지고 있었다. 사정이야 어떻게 됐던 일단 우리는 입을 새어나오는 맥주에 대고 연신 빨아댔다.

차고 찌르르한 맛이 가히 일품이다. 우리는 가지고 간 스페어 통에 맥주를 채웠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 가져간 렌치로 밸브를 막았다. 그런데 압력이 강해서인지 완벽하게 잠가지지가 않는다. 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기에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숙영지로 돌아와 그날 밤은 늦게까지 맥주를 통음했다. 평양 입성 전야에 느꼈던 것과 같이, 다시 17포병대대에

배속된 것을 다행이라고 고맙게 생각했다.

그 후 또 한번 맥주를 가져다 마셨지만 아쉽게도 부대가 소사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맥주 이벤트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2월 말경 포진지가 김포비행장 쪽으로 이동했다. 서울의 서북쪽에서 준동하는 적 지상군, 병참선 등을 포격하기 위함이다. 정보과 관측반은 한강 하류 강변에 위치한 산언덕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아침 일찍 OP에 올라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적정을 살피고 어두워지면 철수하는 임무를 계속했다.

OP로 가는 길은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적으로부터 노출된 강둑을 잠시 달려야 하며 이 길은 초기 강변 정찰임무 중 적의 직사포로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한 코스다.

우리가 탄 썰차가 제방 길을 달리면 어김없이 적의 직사포탄이 날아왔다. 이 길을 달릴 때마다 나는 썰차 뒤에 쫓고 있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주여! 이 몸을 궁홀히 여기시사 저를 적의 직격탄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소 믿음이 약한 장본인이 상황이 긴박하니 염치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리가 없다.

OP를 오가는 길에 하루 두 번씩 생사의 뺑뺑이 돌리기 게임을 하다보니 긴장이 심해서 그런지 헛바늘이 돌아 밥 맛도 없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없다. 10여일 후 정보과는 OP임무에서 벗어나 전포대 전방 야간 경계임무에 투입됐다.

아무리 힘든 야간경비라 할지라도 직사포 표적으로 달리는 일보다는 낫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서서히 식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야간에는 포사격이 거의 없어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이런 적막함 속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고독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건설적 사고를 엮어가는 정신적 훈련을 쌓아 가는 것이 개성을 강하게 하는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항상 극기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었다.

*

서울 재탈환

3월 14일. 드디어 서울이 재탈환됐다. 잊을 수 없는 또 한번의 감격!

가슴에 뭉클한 것이 치민다. 우리 포병부대는 다음날 여의도에 가설된 부교를 통해 마포 쪽으로 입성했다. 이번 서울 탈환작전의 주역은 1사단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한 인접사단이 선봉이 됐다고 했다. 누가 선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도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가노라 삼각산아” 하며 원통한 마음으로 서울을 버리고 후퇴하던 1.4후퇴로부터 2개월여 이제는 “왔노라 삼각산아

반갑다 한강수야”라고 외치면서 광화문 쪽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부대는 성북구 쪽으로 전진했다. “지금 미아리 쪽으로 적이 후퇴중이며 전포대는 패주하는 적에게 집중포격을 가하라”는 명령에 따라 105밀리 곡사포는 계속 불을 뿜어댔다.

시가지에서 포를 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대본부는 전포대 뒷쪽 주택가에 임시 숙영지를 정했다. 우리 정보과는 취사반과 함께 제법 정원이 넓은 일본 집에 자리를 잡고 급양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술을 걸고 물과 땀감을 준비하는 등 바쁘게 설치는데 누군가가 집안 다다미방 밑에 깔린 나무판을 뜯어서 땀감으로 가져왔다. 바짝 마른데다 알파해서 최상의 땀감이었다. 이때 정원 앞 정문쪽에 검은 박스형의 짐차가 섰다. 그리고 경찰간부 같이 보이는 자가 수행경찰과 함께 차에서 내려 정원 잔디밭으로 들어왔다.

취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에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집과 정원을 훼손해도 되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는다. 지금 주변은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최전방인데 어떻게 이런 최전방 전투지역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하사가 “이새끼,

너는 뭐하는 놈이야”하고 소리쳤다. 하도 소리가 매서웠는지 “경찰서장입니다.” 라고 한풀 꺾인 듯 신분을 밝혔다.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마당에 어떤 놈은 개인 재산관리를 위해 전투지역에까지 무단히 들어와 잔소리를 하는가” 하는 생각에 격분했다.

“이새끼! 죽어봐라!” 그리고 칼빈총을 연발에 놓고 경찰서장이라는 자의 귀 바로 옆에 총구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다다다—” 그 자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화석(化石)이 돼버렸다.

“죽기 싫으면 꺼져!” 소리를 질렀다. 혼비백산한 그들은 도망치듯 차를 몰고 달아나버렸다.

틀림없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경찰서장이라는 직함까지 밝혔는데도 이렇게 격하게 대한 것이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반면 오히려 높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심사가 뒤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자위하기도 했다.

또 다시 복진이 시작됐다.

1.4후퇴 이전에 포진했던 위치로 밀고 올라갔다. 간헐적인 적의 저항은 있었으나 결국 4월 초에는 임진강까지 밀

고 올라갔으며 포병대대는 임진강 북쪽을 사정권으로 하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즈음, 38도선을 돌파해서 완전 승리를 목표로 공격을 하느냐 현 전선을 휴전선으로 해서 휴전협상으로 물고 가느냐 하는 의견충돌로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록 인명의 피해, 파괴, 그리고 막대한 전비의 투입으로 손실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맥아더 사령관의 공세적 작전이 물고 올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보다는 낫다는 정치적 결론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이제 통일의 염원은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 결국 맥아더 장군만이 한반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정치적 제물로 희생이 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 특히 6.25전쟁에서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군인들은 그가 남긴 퇴역사(退役辭)중,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ing Away."

이 명언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38도선이라는 휴전선의 개념은 이미 북쪽이 남침을 시작

한 50년 6월 25일을 기해 없어져버렸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비단 휴전협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선을 경계로 하는 공방전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가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밀어붙이는 전투가 전개되게 됐다.

1사단은 임진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강남은 우리가 강북은 적이 점령하는 2분법적 대치상태가 계속되었다.

중공군은 정전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 또 다시 총공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4월 22일, 아니나 다를까 중공군의 대대적 공격이 시작됐다. 1사단은 지연전술을 쓰며 후퇴를 하기 시작했으나 우리 대대와 인접한 영국군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중공군의 포위망에 들어가 800명 중 3~4명만이 살아남는 큰 희생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전투가 치열한 격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중공군도 15,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와서 공산군과 싸워 산화한 용감한 영국군의 처절했던 혈투는 길이길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새겨져야만 할 것이다.

1사단은 계속 후퇴를 하면서 역습의 기회를 노렸다. 결국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골든라인(Golden Line)이라는 선에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됐다.

*

배수의 진 화전리 전투

17포병대대는 대대본부와 전포대가 같은 자리에 위치해 이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의를 굳히고 적의 접근을 기다렸다. 11연대와 15연대 전방에 중공군이 아닌 인민군 대부대가 공격을 해 온다는 보고와 더불어 105밀리 곡사포는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초저녁부터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중단없이 쏘아대는 포의 포신에서는 증기기관차에서 뿜어대는 증기와 같은 김이 주변을 뒤덮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쏘대는지 고막이 터질 것만 같다.

밤이 깊어지자 포신이 달아 어두움 속에서 별장게 이글

거린다. 단위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포탄을 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포탄을 적에게 퍼부어댔다.

비는 줄기차게 밤새 쏟아졌다. 날이 셀 때까지 무아지경에서 포를 쏘고 있는 전포대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적의 주력이 괴멸적(壞滅的) 타격을 입고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사격 중지”의 명령과 더불어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적이 지근거리까지 육박하면 곡사포를 직사로 응사한다는 결의로 임했었는데 적의 주력이 섬멸됐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결국 우리는 서울을 지켜내고야 말았다. 그 후 들은 바에 의하면 철도부근 계곡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였으며 살아서 후퇴하는 인민군도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치명적 손실을 입은 인민군은 썰물같이 북으로 후퇴해버렸다. 17포병대대는 다시 북상하여 능곡쪽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패주하는 인민군 두상에 포탄세례를 퍼부었다. 이로써 정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세 번째 서울 탈취공세를 시도했던 적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다

시 38도선 북쪽으로 후퇴를 하고야 말았다.

우리 부대는 또 다시 임진강을 끼고 대치하는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

고랑포에서 공군사관학교로

이후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진지구축 등 힘든 축성 공사가 마무리되자 정보과는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측지교육을 시작했다.

목표지역, 연결지역, 진지지역, 측지를 실제로 실시하는 등 바쁜 교육일정 속에서 포병 측지 및 관측병으로서 알아야 할 교과를 이수했다.

포사격의 원리를 알려면 삼각함수와 대수(log) 등, 수학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때아닌 수학공부도 하게 됐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다가올 때까지도 부대는

임진강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동쪽에 위치한 인접부대에서는 접적이 자주 있는 듯 했으나 1사단 임진강 전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날이 계속 됐다. 8월도 다 가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장병 위문공연이 있었다. 위문 악극단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부길부길 쇼단」이었으며, 급조된 야전무대에는 많은 장병들이 모여 들었다.

위문공연이 시작되자 장병들은 열광했으며 6.25 전쟁발발 이전에 유행했던 그리운 유행가가 가수들의 열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자 눈물을 흘리며 향수에 잠기는 장병들도 많았다.

나 역시 부모생각, 고향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버라이어티쇼의 1막이 끝나고 장병의 노래자랑 순서가 왔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무대위로 뛰어올라 노래숨씨를 뿜내는 모습이 펍 재미있었다.

이때, 안동에서 여기까지 함께 와서 같은 포병대대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전우가 나를 보고 “빨리 무대에 올라가 색소폰을 불어보라”고 하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1년이란 공백, 색소폰 키를 한 번도 잡아 본 적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집에서 그리고 학교 밴드부

에서 불던 가락이 있어 무대에 올라가 밴드마스터에게 테너 색소폰을 빌려 달라고 하고 반주를 부탁했다.

모든 장병들이 흘러간 노래에 심취한 듯해 먼저 유행가 “청노새 탁식”을 불었다. 전주, 그리고 본곡을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구슬프게 그리고 멋들어지게 불었다. 재청의 합성을 들으며 눈물이 주루룩 흘렀다. 내가 단골로 연주하던 “데니 보이”를 재청곡으로 불었다.

결국 이날 위문공연의 압권은 나의 색소폰 연주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9월 중순 어느 날, 우연히 대대본부 인사계에 갔다가 공군사관학교 3기 사관생도 모집요강이라는 광고 포스터를 봤다. 장차 공군 전투조종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사관생도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다부동 전투에서 선임하사가 “엽전은 전투기 타면 현기증 나서 떨어져 죽는다”고 하던 말이 생각이 났다. 호기심과 비행기에 대한 동경으로 잠을 설쳤다. 드디어 결심을 하고 인사계 선임하사에게 응시가능성 여부를 물어봤다.

응시요강에 부합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으니 문제는 없으나 먼저 정보과 주임장교의 허락과 최종적으로 대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먼저 정보과 선임하사에게 보고를 하고 주임장교에

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주임장교는 시원스럽게 허락을 했다. 며칠 후 드디어 대대장과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대대 내에서는 나와 통신대의 한 명, 모두 두 명이 지원했었기 때문에 두 명이 함께 대대장과 면접을 하게 됐다.

대대장은 부임해 온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학병1기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였다. 가족사항과 교육정도, 그리고 몇 가지 상식에 관한 질문 등으로 면접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다부동전투 때 적의 탱크를 공격하던 곡예와 같은 전투기의 폭격 기동에 매료되어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런 전투기를 타보고 싶다”고 꿈꾸어 왔다고 대답을 했다.

대대장은 흔쾌히 공군사관학교 응시를 허락했으며, 우리 두 명은 인사계에 가서 휴가증을 발부받아 공군사관학교 3기생 모집 시험을 치는 대구 칠성국민학교를 향해 출발을 했다. 도중 영등포역에서 화차를 타고 가다가 수원 쪽에서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는 군용차를 얻어 타고 대전까지 고생고생 끝에 당도했으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녹초가 돼버렸다. 다음 날 대전에서 대구까지도 하루 종일 걸렸으

나 다행히 시험당일까지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닿을 수 있었다.

이틀 동안 시험을 봤으나 합격자 발표는 3일 후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기회에 고향 안동에 다녀오기로 하고 대구를 떠났다. 영천까지 가서 영천에서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가는 중앙선 열차를 타고 안동으로 갈 수가 있었다.

학병1기로 군에 입대한지 1년2개월, 격전지를 누비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고향을 찾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부모님은 무사하시겠지, 동생들도 난리통에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기차는 낙동강 철교를 지나 천천히 안동역 구내로 들어섰다. 안동역에서 집을 향해 뛰었다. 안동은 큰 폭격을 맞았는지 90퍼센트가 파괴된 것 같이 보였다. 시가 중심 중앙통은 아무것도 없다. 철저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폐허를 달리면서 아—, 우리 집도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집은 길가에 병원과 입원실, 그리고 병원 뒤에 큰 기와집 저택이 있는 안동에서 제일 큰 개인병원이었다.

집 앞에 섰다. 건물은 없고, 박살난 잔해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집 쪽으로 가 봤다. 내가 쓰던 방에 있던 피아

노 건반이 누렇게 녹슨 채 나뒹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버린 집터에 털썩 주저앉아 참담한 마음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정신이 들었다.

사지 바지를 칼날같이 세우고 멧을 잔뜩 낸 상사가 내 뺨을 후려 갈겼다. “이 새끼! 상관을 보고도 경례도 안 해!” 나는 악이 받혀 칼빈총 방아쇠에 손이 갔다. 내 얼굴에 살기가 보였는지 그대로 아무 소리 않고 종종걸음으로 떠나버리는 상사의 뒤를 보고 그대로 갈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를 썼다.

“남들은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판국에 후방에서 멧이나 잔뜩 내고 병사들 기합이나 주고 있는 개 새끼 같은 놈” 「튀」 하고 침을 뱉고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피니 병원 앞에 있던 가게집 아주머니가 움막 같은 데서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내가 ○○라고 하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다. “아이고, 안 죽고 살아 돌아 왔구나” 하고 손을 덥석 잡아준다.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도립병원 원장으로 부임

해서 지금 도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 길로 도립병원을 향해 달렸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때 나는 도립병원 원장 관사 정원 쪽 문으로 들어섰다. 관사는 일본식 저택이고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정원 왼쪽 우물(펌프장) 쪽에 평상이 있고 거기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참이 지난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네가 죽었다고 얘기가 있어 이리저리 수소문 중이었는데 이게 왜 일이나!”

나도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했다. 아버지도 곧 병원에서 관사로 오셨다. 나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는 피난길에서 고생이 많으셨는지 꽤 야윈 모습이였다.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 급히 차린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나누며 그간 지나온 얘기가 꼬리를 이어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대화의 파티가 계속됐다.

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는 다시 대구로 와서 칠성국민학교를 찾았다. 게시판에 공사3기생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내 이름을 찾았다.

“아— 합격이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함께 응시한 전우는 불운하게도 고배를 마셨다. 합격자는 다음날 진해로 가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칠성국민학교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대구 동산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 찾아가서 하루를 함께 보내고 안동 부모님께 이제부터 나는 일선으로 가지 않고 진해 공군사관학교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공군장교의 인솔로 진해로 갔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임명되기 위한 가입교 수속을 밟고 공군의 일원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로써 파란만장 했던 나의 포병 제17대대 사병생활은 그 막을 내리게 됐다.

*

결언

20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홀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는 것은 분명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조종사로서의 30
년이란 기나긴 군인의 생활에서 한 건의 비행사고 없이 살
아남았다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희수(喜壽)를 바라보는 만년에 이르러 진중기(陣中
記)를 쓴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요, 겸허한 마음으로
여생을 정리하라는 암시로 받아들이고 싶다. 저물어 가는
바닷가에 새겨진 물새 발자국 같이 내일이면 깨끗이 지워

져버릴 흔적, 삶의 족적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진중기라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탈고에 즈음하여, 후련함과 슬픈 감회가 교차한다.

아내가 살아생전 진중기(陣中記)를 정리하라고 간청을 했
었는데 차일피일 늦추다가 결국은 이 책을 아내의 영전에
바치게 됐으니 어이 슬프다 아니 하리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삼가 아내의 명복을 빌면서 붓을
놓는다.

—송정의 일각에서—

포연^{포연}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초판발행 / 1994년 11월 25일

지은이 / 백 락 승
펴낸곳 / 도서출판 국제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67-5
전 화 / (062) 225-3330, 1

등록일 / 1994년 11월 25일
